

교화운동을 전개시킬 것이니 이에 있어 지금 조선실정에 비추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식 계급에 대어는 새로 출판된 잡지 등 언론의 기관을 동원하여 이의 철저를 기한다 하겠사오나 대다수의 문관부인을 가지고 있는 조선으로서로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이에 대한 시책으로서로는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직접 면대하고 열성으로서 지도할 것입니다. 현재에 있어 본부 혹은 국민 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 등의 주최로 전 조선 각지에 강사를 파견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고 또 각도에서도 관내에 있어 이 같은 행사를 행하고 있는 모양이온데 실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대대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온데 그러자면 유식계급 특히 이 중의 유휴자들은 솔선 출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도군(道郡)에는 모두 부인 촉탁을 배치하여 그 관내 부인계몽에 진력하고 있사온데 그중에는 다소간 질의 저하한 점도 있겠사온즉 우선 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정신과 취지에 철저케 구성시킬 것입니다.

〈출전 : 裴尙明, 「時局的 再認識」, 『春秋』 第5卷 1號, 1944년 1월, 73~74쪽〉

## 5) 징용은 영광스런 일, 장병의 의기로 나서기를

상명실천여학교장 방촌상명(芳村祥明)

징용은 전선과 총후가 다를 뿐이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즉 말하자면 징용된다는 것은 군인이 부르심을 받고 영문으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 명예스러운 의무인 것이다.

이러한 명예스러운 징용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징용을 대단히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징용을 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본다. 출두명령서를 접수하고도 나가지 않는다거나 또 혹은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출두명령서를 되돌려 보내는 일까지 있다는데 이점은 대단히 잘못된 점이다.

그런데 그동안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징용이라면 모르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일반이 생각하고 있는 점도 익히 안다. 징병이라면 의례히 황군장병이 되어 씩씩하게 제일선에 나가서 원수를 쳐 없애기 위하여 싸우는 것으로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면서 징용이라면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징용의 참뜻의 본질을 모르는 까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징용에 대해서 정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안다. 징용의 출두명령을 보냈었다고 해서 모두가 징용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몸과 가정상태와 직업에 대해서 상세한 참작을 한 후 적당한 자만 선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할일 없이 허송세월하고 있는 사람을 징용한다고 해서 취직을 하느라고 서두르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나라에서는 이러한 성의 없는 사람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참마음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온당치 않는 마음을 먹는 사람은 엄벌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벌칙이 두려워서 징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용소된 것과 조금도 다른없는 징용의 본뜻을 이해하고 명예스러운 총후의 산업전사로서의 임무를

다할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제일선에 나가서 반공(反攻)해 오는 적군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혈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와 형제와 아들을 생각해 보자. 전선에서 활약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 총후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는 것도 마음으로 미안하고 염치없는 일인데 징용을 무서워하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를 궁리한다는 것은 국민된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황군장병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인지 모른다.

징용이라는 것은 떳떳하게 군인과 같이 총후의 전사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우선 깊이 인식한 것인데 징용을 받는 당사자뿐 아니라 여성이 먼저 철저한 인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가 아내가 누이가 남성을 권면하고 격려한다면 나는 절대로 징용을 싫어하고 피하려는 비겁한 남성이 있지 않을 것을 믿는다. 남성은 전선으로 그리고 다시 총후의 전선으로 부르심을 받고 국민된 의무를 다할 때 우리 여성은 가정에서 그리고 남자의 손이 모자라는 각 부분을 고루고루 여성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지켜나갈 각오를 새롭게 하자.

〈출전 : 배상명, 「징용은 영광스런 일, 장병의 의기로 나서기를」, 『매일신보』, 1944년 5월 26일〉

## 7. 백낙준(白樂濬)

### 1) 내일의 승리는 오늘의 실천에서

조선기독교서회 편집총무 백원낙준(白原樂濬)<sup>87)</sup>

우리 대일본제국의 1억은 벌써부터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판국이 나날이 변하는 오늘, 우리 1억은 명령일하에 다같이 움직이게 되도록 결전태세를 갖추고 있는 이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이나 내일의 채비차림에 우리는 당국의 명령과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하(戰局下)에 살면서 내일의 채비차림을 말한다는 것이 외람스러움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를 생각하여 보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므로 제 소견의 한끝머리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을 이기고 있습니다. 저 완패한 적의 반공이야 얼마나 끈적끈적 하든지, 최후의 승리는 필경 우리에게 돌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싸우고 있지만은 적의 발악에 비하여는 꺾이나 수월하게 이기는 것이요, 또한 깨끗하게 이겨내는 것이외다.

이렇게 전쟁을 이기고 있는 우리로서 내일의 채비차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당국을 절대로 믿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당국의 지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내일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을 늘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가장 잘하는 채비차림은 오늘 눈앞에 당한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어져 있는 사명을 가장 유감없게

87) 백낙준(白樂濬)의 창씨명.

다하는 데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일을 뒤돌아 볼 것이 없으리만치 원만하게 다하면 그 원만함이 내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한 가지 임무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조금도 서슴치 않고 원수 영·미를 때려 없애고 대동아전쟁을 마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날에는 재건설이 있는 것이외다. 그런데 낡은 집을 그냥 세워두고 완전히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깨끗이 헐어버리고 새로이 짓는 것이 낡은 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완전할 것이외다. 마찬가지로 완전한 신질서건설은 영·미의 질서의 터 위에 세울 것이외다. 내일의 도의의 신질서를 세우려면 영·미의 침략착취의 구질서를 완전히 부셔버려야 하고 내일의 협동안정, 공존공영의 새 질서를 세우려면 영·미의 이기주의와 약육강식의 경쟁 질서를 부셔버리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영 격멸은 오늘 우리의 큰 임무인 동시에 내일의 채비차림이 되는 것이외다.

오늘과 같이 양(量)만을 믿고 함부로 덤비는 저 미·영을 때려부시기는 도저히 쉬운 일이 아니올시다. 전선용사들이 선모용전(善謨勇戰)하여 무력으로 저들을 억누르고 매일 승리를 얻고 있는 것은 우리 일억이 다 감사 감격하여 마지아니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감격은 전력증강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총후에 있는 우리의 일터가 광산이던지 농장이던지 공장이던지 산야이던지 또한 우리 각개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던지 다 전력증강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일선에서는 비행기를 한대라도 더 많이 또한 더 빨리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요청에 응하도록 전력증강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곧 내일의 채비차림을 잘하는 것입니다.

중국철학자 왕양명은 일찍이 말하기를 “산중의 적(賊)을 평정하기는 쉬워도 심중(心中)의 적(賊)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동아의 천지에서 미·영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곧 산중 도적을 잡아 없애는 것이외다. 그것은 우리 무적황군이 벌써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자취를 동아의 천지에서 쫓아내어도 저들의 사상이 의연히 남아 있다면 심중의 적(賊)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심중의 적(賊)을 남겨두고는 미·영을 완전히 격멸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저들의 사상과 이념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이것을 아주 깨끗이 씻어버리며 태워버리고 개국의 정신과 황도의 이념을 몸바쳐 실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처럼 황도정신을 가장 잘 몸받는 것이 내일의 채비차림을 잘하는 것입니다.

대동아전쟁은 일변(一邊) 전쟁이요, 일변 건설이라는 것은 우리 1억이 다 잘 아는 바입니다. 일찍이 없던 대규모의 전쟁이 계속되는 한편으로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은 참으로 눈부시게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건설 사업은 후일에 올 것으로 알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심하면 전쟁이 끝나는 날이면 옛날이 다시 돌아올 줄 생각한다면 이는 말할 수 없는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러한 희미한 꿈에서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제국(帝國)은 도의의 신질서건설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질서건설은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개시해서 착수할 것이 아닙니다. 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 도의의 신질서는 벌써부터 건설에 착수되었고 지금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의의 신질서하에 살라고 하면 그날이 오기를 더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이때부터 도의의 생활을 할 것입니다. 양춘(陽春)이 돌아오면 화기(和氣)가 땅위에 가득하여 죽었던 풀, 마른나무에 생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신질서의 양춘이 벌써 왔으니 낡은 껍질을 어서 벗어버리고 도의의 화기를 맞아들여 이 화기에 물오르고 잎 피고 꽃 피고 열매

맺게까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전쟁만 끝나면 옛날의 구질서가 다시 돌아올 줄 생각한다면 그것은 시계의 바늘을 도로 돌려 놓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외다. 앵글로색슨 류의 구질서는 영영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날이 다시 오지도 못하지만은 오려고 하여도 우리 일본에서는 용납지 못할 것입니다. 도의의 신질서가 건설되는 새 시대가 벌써 왔습니다. 그런즉, 내일의 채비차림을 잘하려면 오늘 이때부터 도의의 생활을 실천할 것입니다.

제국의 1억이 모두 황실중심주의에 화(化)하여 도의의 신질서에 의한 생활을 실천하고 있다면 염려할 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고민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대체 사상약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건전한 사상이 차지 못하여 다른 사상이 틈타 들어올 기회를 주기 때문이외다. 만일 우리 일본전체가 황실중심주의로써 그 정신을 충실하게 가지면 어떠한 유혹성을 가진 요망한 사상이 흘러 돌더라도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외다.

만일 걱정이 된다면 아직 그 정신이 충실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체의 본의의 투철하여 황실중심주의로 사는 것이 곧 내일의 채비차림을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처럼 오늘의 임무를 철저히 실행하고 도의의 신질서의 생활을 실천하고, 국체의 본의에 투철하는 것이 우리 내일의 채비차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출전 : 白原樂濤, 『明日의 勝利는 今日의 實踐에서』, 『放送之友』 1944년 4월호, 44~46쪽)

## 8. 서춘(徐椿)

### 1) 조선과 총력운동

일본에서는 신체제의 이름을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라고 하는데 대하여 조선에서는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이라고 한다. 대정익찬회 또는 국민총력연맹은 기구의 이름이요, 이 기구를 통하여 이 기구가 목표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행하는 일이요, 이것을 운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일본의 운동은 대정익찬 운동이요, 조선에서의 동종운동(同種運動)은 이것을 국민총력운동이라고 한다.

일본의 대정익찬운동이나 조선의 국민총력운동이나를 물론하고 그 목표가 신도실천(臣道實踐), 직역봉공(職域奉公)에 있다는 점에서는 그 궤를 같이 한다. 양자 간의 차이는 일본의 대정익찬운동은 정치적 의의를 포함한 데 대하여 조선의 그것은 단순한 봉공적 실천운동이라는 데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국민총력운동의 목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나미(南) 총독은 이것을 설명하되 “국체의 본의(本義)에 기초하여 참으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결실을 거두며 전신하 국민생활의 전면에 걸쳐 쇄신긴장(刷新緊張)을 촉구하며 국가의 최고 목적에 향하여 멸사봉공의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라고 하였다. 물론 그 아래 계속된 문구는 그렇게 하기 위하

여 국민총력연맹을 결성해 가지고 그 운동을 개시하였다는 것이다.

미나미 총독의 설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선의 국민총력운동은 그 제1목표가 국체의 본의에 기초하여 참으로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두는 데 있고, 제2목표가 전시하 국민생활의 전면에 걸쳐 쇠신 긴장을 촉구하는 데 있고, 그 제3목표가 국가의 최고 목적에 향하여 멸사봉공의 결실을 거두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물에 대한 전후 좌우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후 좌우 표리를 합해야 한 물건이 완전히 되는 모양으로 국민총력운동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 목표를 향하여 동시적 병행적으로 행해야 비로소 신도실천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조선에서 신도실천을 목표로 하여 달(達)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것을 또 한 번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1) 사상통일, 2) 국민훈련 3) 생산력 확충에 있다.

국민 개개인의 두뇌로부터 우리나라와 상용(相容)치 못하는 제종(諸種) 잡사상(雜思想)은 그 어느 것을 물론하고 발본색원적으로 일소(一掃)해 버리고 국가를 위하여 신명을 버리고자 하는 적성을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 사상통일의 내용이다. 다음 국민 개개인의 체격을 훈련에 훈련을 가(加)한 결과 모험(冒險), 용감, 민첩, 신속, 쾌활, 인내의 제력을 가지게 해서 사선(死線)을 향하여 하등 공포심이 없이 용왕매진(勇往邁進)하며 여하한 곤고결핍(困苦缺乏)에도, 장기(長期)에 걸쳐 감내(堪耐)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협심육력(協心戮力), 공고히 결속하는 단결력 또는 단체 행동의 최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훈련의 목표다. 그리고 강내(疆內)에 있는 지상지하의 모든 자원을 힘에 미치는 최대한 까지 개발하며 생산을 증가하여 고도 국방국가건설의 물적 방면을 채우자는 것이 생산력 확충의 목표로 하는 바이다. 고로 사상통일에 의하여 문자대로의 일억일심(一億一心), 멸사봉공(滅私奉公)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 바, 이것은 말하면 고도국방국가의 정신적 방면이다. 그리고 국민훈련에 의하여 고도국방국가의 인적 요소가 완성되는 것이다.

정신에 있어서 체격에 있어서 생산력에 있어서 일억의 개개인이 이러한 경지에 도달했을 때에 이것을 고도국방국가의 완성이라고 한다.

고로 조선에서의 신체제인 국민총력운동은 고도국방국가 건설의 필수 전제인 동시에 고도국방국가를 건설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고로 세계의 어떤 나라 국민보다도 나라를 제일 사랑하는 국민을 만들며 생산력이 제일 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고도 국방국가의 최고 목표다.

그리고 사상 통일을 말하면 마음의 훈련이요, 국민훈련은 몸의 훈련이요, 생산력 확충은 물(物)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다. 대체 훈련이란 무엇이냐 하면 어떤 한 가지 목적을 달하는 데 있어서 최대 효과를 개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한 가지 목적이란 것을 멸사봉공 즉 신도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연의 소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멸사봉공의 신도실천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그 마음을 개조하여 애국적성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즉 마음의 훈련이란 것으로서 '사상통일'의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음 국민 개개인이 한사람도 예외없이 애국적성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체력에 있어서 단체훈련에 있어서 타국민보다 열악한 상태를 면치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방상으로 보아 최대결점의 하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몸의 훈련으로서 국민훈련의 운동이 있는 소이(所以)다. 다음 국민 개개인이 애국정성을 가지며 타국에 비류(比類)가 없는 장대한 체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에 현대과학의 수를 모

아 집성된 무기 즉 군함, 비행기, 전차, 대포 등 고급 무기를 우수차 풍부히 소유치 못한다고 하면 또한 이러한 고급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계공장을 소유치 못한다고 하면 국방상으로 본 그 나라의 가치는 빈약하고 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마음의 훈련과 몸의 훈련이 있고도 다시 물의 훈련 즉 생산력 확충이 있는 근본 이유다. 우리 일본은 지금 이러한 의미의 고도국방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여 마음의 훈련, 몸의 훈련, 물(物)의 훈련을 개시한 것이다. 이것을 개시해 가지고 이 목표를 달하기까지 노력을 계속해 가는 것을 국민총력운동이라고 한다.

이런 운동에 소기(所期)의 목적을 달하는데 정부 측에서 실행하는 제도기구의 개편이 제 일차적으로 필요하지마는 그러나 제도기구의 개편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거기는 반드시 1억 신민의 애국정성으로부터 나오는 만민익찬(萬民翼贊), 직역봉공(職域奉公)의 신윤리, 신도덕이 있어야 한다. 직역봉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신민이 각각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리사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표준하여 국가에 유리하도록 언동(言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응소(應召) 군인이 즐겨 그 신명을 군국에 봉하여 지령된 국방의 부서에 취하는 것과 꼭 같은 심경을 가지고(즉 멸사봉공) 각인이 관민의 경우, 계급의 여하를 불문하고 각각 자기가 현재 보고 있는 일을 보는 것이 즉 직역봉공이다. 응소군인의 심경 가운데는 한 점의 사리추구의 염(念)이 없다. 고로 각인이 처지 여하를 불문하고 그가 맡아하는 일에 있어서 사리추구의 염이 발아하면 그는 그 맡아하는 하는 순간부터 직역봉공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고로 각인이 마음으로부터 사리추구의 염을 제거하고 군국을 위하는 적성을 가지게 하도록 휘예포핍(毀譽褒貶)의 표준을 고치는 것이 신체제가 요구하는 신윤리 신도덕의 목표로 하는 바다. 이 신도덕, 신윤리의 범주에 따라서 모든 제도, 기구가 이와 보조를 같이하여 일변하는 것이다. 고로 금일 이후에는 군국에 대한 공로가 없이 귀(貴)를 가지는 사람, 부(富)를 가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되는 동시에 종래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아리주의(我利主義) 사상 위에 건설되었던 제도, 기구, 윤리, 도덕은 국민의 두뇌로부터 일소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일소되어 버린다는 것은 장차 도달하려는 목표요, 현재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은 아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부터 아주 그렇게 된 상태로 도달하자는 것이 즉 금번에 새로 출발한 국민총력 운동이다. 환언하면 국민총력운동에 의하여 일보일보 그러한 상태에 향하여 이거(移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목표에 도달한 때가 즉 국민총력운동이 그 임무를 다한 날이다.

그런데 이 이거운동(移去運動)에 있어서 가장 빠른 기간에 일억신민이 전부 예외없이 이러한 역할을 다할 자는 오직 청년이 있을 뿐이다. 순결하고 열정있는 청년이 있을 뿐이다. 청년은 선입관념이 도무지 없는 고로 국민총력연맹 즉 신체제가 요구하는 심경 즉 멸사봉공의 심경 공익우선의 심경을 가지기가 가장 용이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국민총력운동은 청년의 분기(奮起)에 기대함이 가장 크다.

〈출전 : 徐椿, 『朝鮮과 總力運動』, 『新時代』 1941년 2월호, 28~31쪽〉

## 9. 손정규(孫貞圭)

### 1) 비상시국과 반도의 여성

조선연맹 참사 손정규

온 나라가 일치단결해야 할 이 시기에 국민으로서 각자가 자신을 반성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봅니다.

그런데 부인은 원래 일이 내적인,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고, 따라서 지위라는 것도 부인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해야 할 일도 온힘을 쏟아야 할 일도 즐거운 일도 모르고, 바꾸어 말하자면 자타 공히 이익이 없이 허무하게 일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생활 그 자체가 부인 한 개인으로서도 가정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 부인이 가져야 할 임무라든가 국가적 관념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가 깊어진다면 참으로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부인의 현 상황을 보면 이룰테면 철이 들었다고 할 수 있는(중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 사람들은 매우 소극적이고, 다소 학문은 있다 해도 대부분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평온하기만 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2~3년 뒤의 일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인의 사회가 어떻고 전신상태가 어떻다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국가의 비상시라든가 자신의 책임을 알 턱이 없습니다. 지방을 돌아다녀 봐도 강연회나 좌담회는 있지만 부인들은 셀 수 있을 정도밖에 출석하지 않고, 또 도회지에서는 알고는 있어도 모르는 척 하고 지내는 식이라서 매우 모음이 저조하고, 이들 부인들은 교육을 받아도 학교를 나와 가정에 들어가면 전혀 진보하지 않고 평범해지는 모양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남자에게도 많은 죄가 있습니다만, 요컨대 반도의 여성은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도의 부인은 조선의 문화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뒤쳐져 있기 때문에 부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각 구성원들이 자각과 희생으로 협력하는 열정이 없으면 언제까지나 조선의 부인은 진보·향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래 국가의 중책을 짊어질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또 충후(銃後)의 일선에 활동하는 사람의 아내로서, 일본의 여성으로서의 자각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언제가 경기도 평택에 갔을 때, 부인의 회합이 있어서 약 3분의 1정도 일본 내지인 부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말도 ‘국어<sup>88)</sup>’가 아니고 어차피 조선의 어머니들을 상대하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만 자유롭게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더니, 군수의 부인으로 일본 내지 분이 “아뇨, 말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조선의 부인들이 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참으로 할 말이 없게 될 터이

---

88) 일본어.

니 모습만이라도 서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시국인식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이들이 4-5명 있었는데, 부인이 직접 과자를 주면서 그 모임의 정숙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일은 처음 보았고 도회지에서는 이런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선 부인은 타인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개개인 스스로 일어서야 하고, 주위 사람들은 조선 부인들에게 성급한 효과를 바라지 말고 진정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명석함으로 원조·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출전 : 孫貞圭, 「非常時局と半島の女性」, 『總動員』 1卷 2號, 1939년 7월, 29~31쪽〉

## 2) 우리에게 각오 있다

과거의 우리반도의 여성은 방안에 들어앉아 집안일만 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시국에 따라 차차 이러한 관념도 전시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데 이번 일본에 여자의 노무령이 내린 것은 참말 반도여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각성과 결의를 갖게 하고 있다. 이것을 계기로 반도 여성들은 크게 생각을 고쳐 적극적으로 사회에 헌신할 열의를 가져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과거와 케케묵은 구식사상을 버리고 이해 있는 반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 전시대세를 여자들로 하여 더욱 강력하게 정비하여 오로지 숙적 미영을 격멸하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출전 : 孫貞圭, 「우리에게 覺悟있다」, 『매일신보』, 1943년 9월 23일〉

## 3) 일터가 바로 싸움터, 근로동원에 다 나서자

이원규(伊原圭)<sup>89)</sup>

전력증강(戰力增強)에 이야기라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태평양전쟁 만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에 있어서는 각별한 각오가 필요할 줄 안다.

전쟁과 부인근로의 문제는 전쟁수행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완전히 이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력의 증강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 생산력 확충의 근본이 물자와 노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 나라의 큰 일꾼들인 청장년남자가 제일선에 동원되기 때문에 생기는 모자라는 노동력과 전쟁을 이겨내기 위하여 새로 생긴 군수산업을 위해서 기타의 생산확충 산업과 식량을 증산하기 위해서 생기는 일거리는 나라가 평화스러운 때보다 몇 배의 생산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89) 손정규(孫貞圭)의 창씨명.



비례로 노력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노동력과 새로이 요구되는 노동력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 노동력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해 하는 것은 전쟁에 그렇게 관계가 깊지 못한 산업방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긴급히 중요산업부문에 집중시켜야만 되는데 우리의 자제들이 영예로운 응징사로 나가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여성이다.

우리 여성으로서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모든 남성은 전장에서 싸우고 모든 여성은 총후의 산업방면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맹방 독일에서는 80퍼센트가 여성이고 정거장의 개찰과 기차, 전차, 버스의 차장은 물론 그리고 개전 직후 발표된 강제노동법에 의해서 백화점과 사치품을 팔던 점원은 전부 군수공장으로 이동하게 하고 나치스부인회와 여자청년대는 군대의 뒤에서 피난민구제를 한다든지 참말로 한사람의 유한부인도 용납되지 못하는 철저한 총후모습이라 한다.

반도여성도 종래의 여성의 근로란 일부분적인 것 즉 가정의 살림살이만 잘하면 여성으로서 책임을 다하였다는 관념을 버리고 남성과 같이 전면적인 생산부문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

적은 예로 각 가정에선 식모나 하인을 전폐하기로 하여 국가에 필요 노무력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기로 할 것이다.

그리고 종래에 일하는 계급과 일하지 않는 계급이 있어 일하는 계급을 천히 여기던 그러한 생각은 물론 없애야 할 줄 안다. 더욱이 여자를 집문 밖에 내세워 직업을 갖게 한다는 것은 당치 않은 일같이 생각해 왔으나 일역 국민 중에 한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무업자가 없어야 할 때다. 가정의 어머니들은 자진해서 각 가정의 여성으로 하여금 국가의 필요한 부문에 취업하게 해서 총후봉공을 다하게 하기 바란다. 이러한 여성의 굳은 맹세는 말없이 적을 격멸하는 큰 무기가 될 것이다.

〈출전 : 伊原圭, 「일터가 바로 싸움터 근로동원에 다 나서자」, 『매일신보』, 1944년 12월 11일〉

#### 4) 여성들도 전열에 바치자, 조국애의 적성

이원규(伊原圭)

본토 결전을 앞두고 반도에도 국민의용대가 결성되어 최후의 결전태세를 갖추게 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적은 머지않아서 우리본토에 대들어 올 것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역 국민은 오직 생산증강과 물샐틈없는 방위에 정진할 뿐이다. 일천삼백만 반도여성들의 조국애에 불타는 적성을 바칠 때는 임박하였다. 우리 여성들도 지역과 또는 직역(職域) 국민의용대원으로서 조국의 운명을 짊어지고 싸울 때는 왔다. 7일에 포고한 아베 총독의 유고(諭告)를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분골쇄신하여야 할 줄 믿는다.

〈출전 : 伊原圭, 「여성들도 戰列에 바치자 祖國愛의 赤誠」, 『매일신보』, 1945년 7월 9일〉

## 10. 신봉조(辛鳳祚)

### 1) 판 판이 된 여학생

이화고녀교장(梨花高女校長) 신도순(辛島純)<sup>90)</sup>

성전(聖戰) 5년을 치르는 동안 여학생자신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일반 학부형들의 인식까지 훨씬 달라졌습니다. 여학생이란 얌전이 공부나 하고 졸업을 하면 집안에 들어앉았다가 시집이나 갈 것으로 알아왔으나 요즘에 이러한 관념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하겠습니다.

전 같으면 여자에게 더군다나 공부를 하는 여학생에게 근로하라니 가당하거나 한 것이냐고 펄펄 뛰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애국일, 휴가 같은 때의 근로봉사(勤勞奉仕)는 의례하는 것으로 알고 자진하여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가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한 근로에 대하여 아무런 보수(報酬)를 바라는 것도 아니요, 다만 근로를 하므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듯 싶습니다.

이 근로와 관계되는 체위향상(體位向上)도 놀랄만 합니다. 우리학교에서 경험한 결과를 보면 뜨거운 열에 1시간 이상 세워두면 4-5년 전에는 100명 중 30명은 문제없이 졸도하였으나 요즘 들어서는 졸도무리가 겨우 1~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체위향상은 근로에 있어서 절대조건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니 만큼 시국인식은 섬세한 일까지 뚜렷이 나타납니다. 사소하고 대수롭게 보지 않는 것이라도 아낀다는 것입니다. 현실 한 토막 한 뼘의 재봉침(裁縫針) 실일지라도 결코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물자가 혼할 때 같으면야 궁상스러워 보일 뿐더러 오히려 시간적으로는 손실이 되겠으나 이 시국에 어린 그들의 이러한 기풍은 마땅히 우리 성인들이 배워야 할 점 일줄 압니다. 이렇게까지 시국인식이 철저해졌으니 이제부터는 여자를 더구나 여학생을 소비층으로만 허술히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좋은 습관은 반드시 명가정(名家庭)에 반영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렇듯 그들의 어린 가슴에 깊이 깃들인 철저한 시국과 국가인식은 어느 곳에 내놓아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출전 : 辛島純 「판 판이 된 女學生」, 『朝光』 第7卷 10號, 1941년 10월〉

90) 신봉조(辛鳳祚)의 창씨명.

## 11. 윤태빈(尹泰彬)

### 1) 본도(本道) 국민총력운동에 대하여

충북지사(忠北知事) 이등태빈(伊藤泰彬)<sup>91)</sup>

국민총력충청북도연맹(國民總力忠淸北道聯盟)은 지난해 10월 결성되어 11월에는 오노(大野) 부총재 각하(副總裁閣下)를 맞이하여 공전의 성황리에 대회를 개최하고 모든 개인과 단체를 망라하여 일국민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금년에는 그 기구의 확충강화를 도모하여 이 실천에의 힘찬 제1보를 내놓은 것이다. 시국의 진전에 따라 금후 더욱 물자통제와 소비규정의 강화를 필요로 하고 국민경제생활에 수많은 변화를 각오하여야 하는데 이 시련을 극복하고 연맹의 목표인 국방국가건설의 사명을 달성함에는 도민 각 자의 엄숙한 자제와 불요불굴(不撓不屈) 철벽인고(鐵壁忍苦)의 태세가 근본적 요건이다. 특히 연맹 지도자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당시 지사들의 극고(克苦)에 지지 않는 노력을 요하는 것이니 지방 제일선의 지도자는 솔선 진두에 서서 그 충성을 다하여 국민생활의 쇄신을 도모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출전 : 伊藤泰彬, 「本道 國民總力運動에 對하여」, 『朝光』 7卷 3號, 1941년 3월, 316쪽〉

## 12. 이각중(李覺鍾)

### 1) 『국민정신총동원독본』(1938)

하산(霞山) 이각중 편(編)

#### 칙어(勅語)

이번 사변의 발발 이래 지금 1년. 짐의 용무(勇武)한 장병(將兵)은 과감 역투(力鬪)하여 전국(戰局)은 그 걸음을 진행하고 짐의 충량(忠良)한 신민(臣民)은 협심(協心)육력(戮力)하여 총후(銃後)의 준비를 견고히 함은 짐이 깊이 가상(嘉尙)하는 바이다. 생각컨대 지금에 적년의 화근을 끊지 아니하면 동아의 안정은 영구히 바랄 수 없을 것이니 일지의 제후를 견고히 하여서 공영의 결과를 거둠은 이 참으로 세계 평화의 확립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관민은 더욱 그 본분을 다하고 간난(艱難)을 배척하며 곤고(困苦)를 견디어 더욱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이 세국(世局)에 처하여 속히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期)하라.

1938년 7월 7일

91) 윤태빈(尹泰彬)의 창씨명.

## 유고(諭告)

‘지나사변(支那事變)<sup>92)</sup> 1주년을 맞이하여 황공하옵기도 우악(優渥)하신 칙어(勅語)를 하사 하옵시니  
굉원(宏遠)하신 성려(聖慮)를 봉배(奉拜)하고 공구(恐懼) 감격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근유(謹惟)하옵건대 밖으로 황군의 위무(威武)에 의한 혁혁한 전과(戰果)와 안으로 조야일심으로 천  
황폐하의 대능위(大稜威)에 연유치 않은 바가 없다. 그리하여 이번 사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더욱 국  
가의 총력을 기우릴 이유를 소시(昭示)하시니 억조(億兆)숙연(肅然) 정(正)히 감명(感銘)을 새로이 하여  
총후(銃後)의 충절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총독은 미리 설시(說示)한 강요(綱要)에 기초하여 다만  
관내 관민의 일치단속에 의하여 만난(萬難)을 근절하고 반도의 부하(負荷)를 완전히 하여서 성지(聖旨)  
에 봉부(奉副)하기를 기하노라.

1938년 7월 7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 제1. 개인과 국가

무릇 인류는 자기를 사랑치 않는 자가 없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국가를 사랑치 않는 자가  
없다. 국가는 실로 인류의 공동생활상 가장 필요하고 자연히 발생된 바의 생명체이다. 특히 일본제국은  
만세일손의 청환을 중심으로 혈통을 같이 한 동족애를 기초로 하여 결합된 역사적 존재이니 단순히 개  
인과 개인의 집합된 전체가 아니라 국가는 국가로서의 생명과 이상이 있고 국민이 모두 국가를 위하여  
존재하며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최대임을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국민으로서 국가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성 본연에서 출발하는 최고도덕심의 발휘이며  
국가의 생명과 이상을 위하여 봉공하는 것은 곧 자기의 완성이요 전체를 위하여 개체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일본제국의 국체가 만방(萬邦) 무비(無比)한 까닭이니 일본국민의 애국심이 가장 강렬  
한 특이성이다.

바다로 가면  
물에 체인 송장  
산으로 가면  
풀에 썩는 송장  
님의 곁에서만  
죽자꾸나  
돌아볼 것 없다.

이 노래는 바로 일사보국의 의기에 불타는 일본국민의 애국심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

92) 중일전쟁.

그러나 이는 유독이 칠천만 일본인만이 가진 특성이 아니다. 혈액과 문화의 연원을 같이 한 우리 반도 2천 3백만도 한 가지로 구비한 동일의 전통이니

이 몸이 죽어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고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조선 사람의 간장(肝臟)에서 우러난 이 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금 애국심의 내선동원(內鮮同源)을 느끼게 한다.

일본은 원래 천우(天祐)의 국가이다. 유사 이래 한 번도 외적의 침범을 받은 일이 없고 국민의 강렬한 애국심으로써 일치단결하여 모든 고난과 분투한 결과는 항상 최후의 목적을 관철치 아니하면 말지 않았다. 필승의 신념! 이것은 일본인의 전체를 관통한 만고 부동의 철칙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념이 있는 이상 수천만인이라도 나에게 오라 하는 용기가 유연히 융출한다. 세계 그 무엇도 이를 막을 자 없을 것이다.

## 제2. 국가총동원

국가생명의 발전을 위하여 전쟁이 불가피하게 된 이상 근대의 전쟁을 곧 국가 전체를 들어 싸우는 바 소위 국력전이 필요하니 국가는 인적 물질 총체를 동원시켜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하여야 한다.

하루아침에 유사지시(有事之時)를 당하면 병력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군용물자재료의 공급을 유감없게 하기 위하여 국내 공업력을 평시에 배양 조장하였다가 전시에 시급히 그 군용능력을 발휘하도록 군수공업동원의 준비가 필요한 줄은 누구나 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군용자재의 수요충족은 필연적으로 이에 관련된 국방 제산업의 운영상 필요한 제반의 수요를 충족케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원료, 연료, 전력 내지 운수, 통신, 과학연구 등 모든 수요는 직접 간접으로 군수공업의 수요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럴 뿐 아니라 이상 군수 충족이 아무리 확보되었다 할지라도 한편으로 국내 일반 경제의 균형 특히 국민생활상의 수요가 극도로 억압되어 그 최소한도가 보장되지 못할진대 자못 군수충족의 근본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연이어서 국민정신을 위축 침체케 하여 마침내 전승목적의 달성을 저해하기에 이를 것은 일찍이 구주대전(歐洲大戰)<sup>93)</sup> 당시 독일의 패전사례를 보면 명백하다. 그러므로 국가의 전시체제에 있어서는 물질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는 (1) 거대한 군수충족과 (2) 이에 수반하여 파탄(破綻)되기 쉬운 일반 경제 취중 국민생활의 영안(永安) 확보를 2대 안목(眼目)으로 한다. 그리고 다시 이들 수요충족방책과 표리상부 되는 금융통제와 국민총력기능 등의 군용조정 내지 국민정신의 강화 등을 필요로

93) 제1차 세계대전을 뜻함.

한다.

요컨대 근대의 전쟁을 병력만의 전투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일국의 모든 힘 즉 물심양면에 걸친 총능력을 전승의 최고목표에 집중시켜 전선(戰線)과 총후(銃後)가 완전히 일체가 되어 국력과 국력이 서로 싸우는 체제를 정비치 아니하면 불가하니 국가총동원이란 실로 이러한 사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일찍이 제1차 세계대전의 체험에 비추어 구미 열국이 모두 이 총동원제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73회의에서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발포 되었으니 그 제1조에 의하면

‘본법에 국가총동원이라 함은 전시(전쟁에 준한 사변의 경우를 포함함)에 즈음하여 국방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라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케 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함을 위함’ 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평시부터 국민으로 하여금 일조유사시에 국가권력발동의 형태를 숙지케 하는 동시에 이에 응할 책무를 스스로 인식하여 물심양면으로 준비와 각오를 견확(堅確)케 하려는 것이니 국가총동원의 요체(要諦)가 실로 여기에 있다.

### 제3. 국민정신총동원

국운의 소장(消長)은 국민정신의 성쇠(盛衰)에 있다. 국가총동원은 오로지 국민의 애국심을 기초로 하는 것이니 국민 각자가 모두 전선에 선 전사가 되어 국가총력전에 참가하는 각오로써 자발적으로 국책에 협력함이 아니면 도저히 목적의 만전을 달성치 못할 것이니 여기에 국민정신총동원의 필요가 있다. 즉 국민정신총동원은 국가총동원 전체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종래 일본에서는 별반의 국민정신총동원의 조직체제가 없었으나 일반 국민의 애국심의 발동에 의하여 일청(日淸)·일러(日露)의 대전쟁을 경과하였었다. 그러나 이번 사변을 맞아 근대전의 특징에 비추어 국가총동원의 법제화와 함께 일대국민운동을 환기하여 정비한 조직과 완전한 통제하에 그 효과를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정신총동원 중앙연맹을 조직하여 국민정신의 강화를 도모하여 금일에 이르렀다.

우리 반도에서는 일찍이 사변 당초에 총독으로부터 제국의 방침을 들어 시국인식과 민중의 협력을 요망한 바 있었던바 반도 민중이 흡연면중(翕然面從)하여 총후(銃後)의 적성(赤誠)이 날로 양양되어 이제 애국 조선의 전모가 멀리 전선 장병과 병사의 병기(兵氣)를 고무 격려하고 일본 동포를 감격케 하는 등 내선일체 거국일치의 결실을 보여 왔으니 국민정신총동원의 본질은 사실에 있어서 이미 구현되고 있었더니 일대국민운동의 실현을 각 방면으로 요구되어 6월 22일에 민간유지의 발기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결성되었다. 그 취지에서 말하길

‘생각건대 이번의 지나사변은 동아의 화근 항일정권을 타도하고 광휘있는 황도정신을 발양해서 세계 평화에 공헌하려고 하는 성전으로서 우리 건국정신, 일본의 대사명이 실로 여기에 있다.’

그 후 1년에 황군은 연전연승하여 이미 중국 땅의 반을 석권하고 총후의 국민은 거국일치 진충보국의 정성을 다한다. 우리 반도에서는 총독이 낭자(曩者)<sup>94)</sup>에 제국의 향할 바를 명백히 하고 민중의 진로

94) 지난 번이라는 뜻.

를 제시함에 반도의 민중이 또한 국민적 자각을 환기하여 내선일체가 되어 총후의 적성을 받들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어능위(御稜威)의 그렇게 하는 바로서 황국신민이 모두 감격에 못 이겨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하의 국제정세는 복잡다단 익익미묘(益益微妙)를 극(極)하여 사태의 추이를 따라 역도(逆觀)를 불허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용이치 않은 시국을 재인식하고 더욱 국민정신을 강화하여 금후 어떠한 난국에 닥치더라도 항상 견인지구(堅引持久) 만난(萬難)을 배척하여 국가적 사명의 달성을 기하여야 한다.

당국은 이 정세에 비추어 국민정신통도원운동을 투철히 하여 존엄한 우리 국체에 기초하여 더욱 진중보국의 정신을 앙양하고 이를 국민일상생활의 실천에 구현화 하고 향상화 하여서 소기의 목적을 관철하려고 하니, 역시 국민전체의 의지이며 의무이다. 우리들이 이에 국민정신통동원 조선연맹을 결성하고 사회 가가 방면에 걸쳐 동일 지도정신하에 운동을 통제 강화하여 진실로 관민협력 내선일체 국책에 순응하여 총후의 지킴을 견고히 하여서 시간(時艱)을 극복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7월 7일 노구교사건 발생 기념일을 기하여 경성에 있는 7백여 단체 3만의 군중이 경성공설운동장에 회집하여 때마침 호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성대한 발회식을 거행하고 금후의 결의를 선언하여 국민감격의 역사적 광경을 연출하자 당일 동시에 지방에서도 호응하여 꺾기한 자 백여 개소에 달하였다.

이때 7월 7일 황송하옵게도 칙어(勅語)를 내리시와 국가의 총력을 들어 이 세국에 처하여 속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하라 선시(宣示)하시고 총독은 유고(諭告)를 발표하여 관민일치 결속하여 만난을 물리치고 반도의 부하를 완수해서 성지(聖旨)에 봉부(奉副)<sup>95)</sup>하기를 기하기로 하였다. 국민정신통동원 조선연맹운동은 이같이 시대에 적응한 국가적 요구에 의하여 오로지 민간 유지의 자발적 분기로 국민감격리에 탄생한 만큼 2천 3백만 국민의 의기(義氣)와 결심을 대표하여 비상시 국가적 임무와 기대가 중대하다. 그러므로 진실로 시국에 처하여 동포의 애국열은 흡연(翕然)히 조선연맹운동에 집주(集注)하여 지방연맹결성이 요원의 불과 같이 전선(全鮮)에 확대되어 방방곡곡에 보급 철저하게 되었다.

선 언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고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정신을 세계에 앙양함은 제국 부동의 국시(國是)이다. 우리들은 이에 일치단결 국민정신을 총동원하여 내선일체로 전능력을 발휘하여 국책의 수행에 협력하여서 성전 궁극의 목적을 관철하기를 기함.

1938년 7월 7일

국민정신통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그러면 이 연맹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선언에 말함과 같이 내선일체로 전능력을 발휘하여 국책에 협력하자는 한 가지 일에 그친다. 더욱이 이것은 관의 명령이 아니고 국민 각자의 애국심에 호소하여 민중이 자발적으로 관에 협력하여 총독 유고와 같이 관민일치 결속에 의하여 만난을 극복하고 반도의 부하를 완전히 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금후 연맹운동으로서 필요한 임무는 우선 민중으로 하여금

95) 받들어 맞이함.

구가의 사상=세계 일본의 대사명이 어디에 있는가와 국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하여 일역 동포가 의기와 보조를 일치하게 하는 데 있다.

#### 제4. 세계일본의 대사명(大使命) - 일본정신의 현양(顯揚)

금일의 일본은 3천년 이래 유구한 역사에 있었던 여러 번의 비상시라는 그때보다도 일층 더 큰 비상시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실로 의의가 깊은 광휘있는 세계 역사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에 빛나는 바의 일대 국가사업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상시라는 대파도와 싸워서 빛나는 역사를 건설하여 감에는 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이 비상시와 싸워가게 되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이 역사적인 일대사업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인가. 목표가 없는 싸움과 목표가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이 비상시와 싸우면서 나가는 목표인가 하면 그것은 일본이 가지게 된 그 대사명이다. 그러면 일본의 대사명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일본의 대사명은 대체로 말하자면 지리적, 문화적=학문, 예술, 풍속 등의 점에 대하여 상접 상이한 동양의 일(日), 만(滿), 중(中) 삼국이 서로 중심으로부터 손을 굳게 잡고 서로 협력함에 의하여 동양평화를 건설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 선, 중이 일체가 된다는 것을 그것이 곧 동양평화라 하는 부동체(不動體)가 되는 것이다.

이같이 일, 만, 중의 삼국이 서로 제휴하여 영원히 부동의 동양평화를 건설하고 그것으로서 세계의 새로운 평화의 건설에 자진 참가하여 세계평화의 건설에 공헌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변함이 없는 일본의 대사명이다.

대체 이 일본의 대사명, 대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정한 것인가 하면 그것을 우리 일본의 황조(皇祖)가 건국할 때에 정하여 세우신바 한가지의 길(道)인 것이니 이것을 건국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본의 대사명, 대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건국의 정신이다. 건국 이래 역대의 천황이 실행하고 계승한 길(道)이다. 역대의 천황의 실행하옵신 도를 황도(皇道)라고 칭한다.

그러므로 일본의 대사명, 대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국의 정신이며 또한 역대의 천황이 삼천년 역사를 일관하여 실행하옵신 황도이다.

신무천황(神武天皇)이 즉위하옵실 때 조칙(詔勅)을 내리시었으니

‘육합(六合 : 우주)을 겸비하여 도읍을 여시고, 팔굉(八紘 : 세계)을 덮어 집으로 삼는 것이 또한 가하지 않는가’

즉 일본의 국내는 물론이며 넓게는 세계의 제국 세계의 인류들에게 평안하게 그 직분에 취하게 하고 따라서 의지를 비로소 달성하게 하여 상부상조 마치 일가와 같이 친하게 하자, 그래서 이 일가와 같은 친화의 정신을 세계의 방방곡곡에까지 미치게 하여 참다운 세계의 교여화를 건설하시려고 하는 정신이다. 일, 만, 중의 삼국이 서로 마음으로 제휴하고 서로 협력하여 동양평화를 건설하고 그래서 다시금 일보를 나아가 세계평화의 건설에 공헌하려고 하는 일본의 대사명, 일본의 대이상이 실로 건국의 정신이며 또 건국 이래 역대 천황의 실행하옵신 황도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들 일본 신민은 역대의 천황이 실행하옵신 도(道) 즉 일본의 대사명, 대이상을 수행하옵시는 대업을 부익(扶翼)하는 것이 그 의무이며 또 신민의 도인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들 신민은 신명을 걸고 성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진충보국(盡忠報國)', '칠생보국(七生報國)'이라는 것은 실로 여기에 대한 말이다. 우리들 신민은 참으로 신명을 천황에 바쳐 천양(天壤)무궁(無窮)의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반시(半時)에는 각각 그 직분에 따라서 정려(精勵)하는 것이 황운을 부익하는 것이 되고 폐하께 진충보국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길을 제외하고서는 일본 신민의 살 길은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 일본의 국체라 하는 것을 약설(略說)하려고 한다.

일본의 국체에 대하여는 특히 설명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점을 들어서 말씀하려고 한다.

대체 일본과 같이 도의(道義)로서 국가를 건설한 국가는 오로지 세계 중에 일본 외에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팔굉일우' 즉 세계의 국가와 세계인민을 일가와 같이 친화하게 하는 바 진실로 진정한 세계평화를 건설하고자 하는 대사명, 대이상, 대도로서 국가를 건설한 것이다. 이 대사명, 대이상을 달성시키기 위한 필요로써 일본의 국가는 건설된 것이다. 세계의 지도자로서 인류의 지도자로서 세워진 것이 일본의 나라이며 일본의 민족이다.

일본의 이 국체를 생각해 된다면 우리는 일본인으로서 출생한 광영을 마음껏 감득(感得)함이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실로 우리 국민은 모두 일본인으로서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국가의 이상이 없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도의적으로 뚜렷한 것은 없다. 또 설령 훌륭한 길을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도 실행되지 못하는 결과로 되어있다. 이 점으로 제일 좋은 예는 중국이며 그 다음은 소련이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옹호를 위하여 이상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국민은 대개 무관심하고 또는 반목질시하여 국내 인심은 항상 통일을 볼 수가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억조(億兆)일심(一心)으로 국가의 대사명에 매진하게 되는 일본은 참으로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 만, 중 삼국이 서로 협력하여 영원히 부동체의 동양평화를 건설하고 그것으로서 세계의 새로운 진정한 평화의 건설에 자진 참가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는 것이 일본의 대사명, 대이상이다. 그러면 우리 일본은 이 대사명, 대이상을 성취하기 위하여 금일까지에 대체 얼마나한 노력을 계속해 왔던가, 그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해 왔던가, 또 이 대사명의 실행에 대대의 천황이 얼마나 대어심로(大御心勞)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지나사변이 왜 발생했는가, 또 지나사변의 해결이 왜 우리 일본의 대사명인가, 그리고 이 사변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일본의 대사명에 적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일본이 오랜 준비의 역사를 경유하여 드디어 세계의 무대에 진출하여 이 대사명을 실행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明治) 시대인 것이다. 준비의 기간이 오래인 만큼 마침내 실행에 착수하게 되자 실로 맹렬한 활약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맹렬한 활약에는 세계의 제국이 다 한가지로 경탄하게 된

것이다. 오랫동안 일본국체라든지 일본정신이라 하는 것이 외국인에게 이해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릇된 생각으로 ‘일본은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라고 하고 또는 ‘일본은 침략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가까운 예는 만주사변이던지 또는 이번 지나사변이던지 영국을 비롯하여 타국이 그와 같이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대사명, 일본정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참으로 세계에 이해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이 대사명, 일본정신이란 것을 세계 제국의 어디든지 넓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세계의 제국(諸國)과 세계의 사람들을 일본의 사명, 일본정신에 향하게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돌아보라. 동아의 대지에는 백인의 독니가 움직인 지 오랜지라. 우리는 언제나 백인의 제압하에서 신음하고만 있을 것인가. 동아로 하여금 다시 동아인의 동아되게 할 자 그 누구이던가. 감히 이 대사명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 일본이다. 지나간 일청(日淸), 일러(日露)의 양대전, 가깝게는 만주사변, 단연코 국제연맹을 이탈하여 유색인종을 위하여 만장의 기염을 토하고 일로 동아재건의 대목적에 향하여 매진하고 있다.

가련하게 미몽(迷夢)을 아직 깨지 못한 장개석(蔣介石)이 오히려 배후의 세력을 믿고 항일 광포(狂暴)를 일삼으니 이것을 응징치 아니하면 자못 일본의 사명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중국 땅 4억만 창생(蒼生)이 도탄에 빠지고 말 것이며 동양 평화는 다시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견디고 견뎌 온 일본은 동양평화의 근본적 수립을 위하든지 또는 중국의 배후에 적로(赤露)의 세력이 연결되어 있는 이상 전세계의 새로운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도저히 이것을 묵과할 수가 없다. 비록 아무리 영·불 기타 각국의 세력이 결탁되어 있을지라도 일본은 건국이래에 계승승한 전통적 정신, 일본의 대사명, 대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국가총동원으로 단호히 이 성전의 목적을 관철치 아니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일본이 무수한 희생을 불구하고 성전의 성과를 거두어야만 전동아가 재건될 것이며 중국 창생의 행복이 초래될 것이며 일본의 존재가 세계에 빛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의 대사명 대이상 곧 일본정신의 진수를 전세계에 현양하여 세계인류로 하여금 일본의 이상에 향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세계일본의 양양’ 이것이야말로 우리 일본이 짊어진 중대한 책임이며 또한 우리 일본인만이 가진 광영이라 할 것이다.

## 제5. 내선일체(內鮮一體)

이같이 일본의 대사명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이상의 가장 충실한 반주자(伴奏者)는 누구보다 먼저 결합한 조선인이다. ‘일한병합(日韓併合)’이란 원래 무력에 의한 정복이 아니요 양국 원수의 합의 제후로서 성립된 역사가 증명함과 같다. 당시 메이지 천황폐하께서 동양평화를 영원에 확보하고 제국의 안전을 장래에 보장하고 조선민중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삼대목적으로써 한국을 일본에 병합하는 취지를 선시(宣示)하시고 “민중은 직접 짐의 수무(綏撫)하에 서서 그 강복(康福)을 증진할 것이요, 산업 및 무역은 치평(治平)의하에 현저한 발달을 보임에 이를 것이라”하셨으며 융희(隆熙) 황제 폐하의 조서(詔書)에 이르길

“짐이 동양평화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써 피아(彼我)상화(相和)하여 일가를 이룸은 서로 만세의 행복을 도모하는 소이(所以)임을 깨달아” 운운하셨다. 이 점이 저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가 이민족을 정복하여 식민지를 설정한 것과는 근본에서 상이한 것이다.

이 내선일가(內鮮一家)의 관념은 팔굉일우의 이상과 연원을 같이 한 것으로 금일의 내선일체(內鮮一體)는 실로 멀리 건국정신에서 그 발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못 지리적으로 조선이 일본의 대륙진출의 병참기지(兵站基地)된 관계 뿐 아니라 혈통과 문화의 연원을 같이 한 자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므로 우리 반도 동포도 역시 일본인으로 일본정신을 같이 하고 일본의 대사명 대이상을 같이 하여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을 같이 하며 고락을 같이 할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한다. 내선일체의 진짜 골자는 바로 이에 있는 것이다. 이같이 하여 내선일체로 이것이 핵심이 되어 동아를 재건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각오하여 필생의 노력을 경도하여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서사(誓詞)가 그것이다.

1. 우리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忠誠)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한다.
2. 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한다.
3.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皇道)를 선양한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도 일본인 보다 못지 않은 총량한 ‘천황폐하의 적자(赤子)’되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동해일우(東海一隅)에서 적경중휘(積慶重暉) 2천6백년의 정기(正氣)를 기르던 일본제국이 인류문명사상에 춤추던 서양 각국이 세계의 절대평화의 건설자로서 몰락되려는 이때 아침 해같이 선명한 2천만의 힘을 합하여 육일동천(旭日東天)의 세를 가지고 등장하여왔다. 이 신흥대국이 일본은 실로 위와 같이 대사명 대이상을 가지고 2천만의 반주자와 함께 결합일체 핵심이 되어 장차 인류문화사상 공전의 대공헌을 달성하려는 희망에 빛나고 있는 것이다.

## 제6. 근로보국(勤勞報國)

최근 당국의 창안에 의하여 학생을 위시하여 일반민중의 근로보국운동이 시작되었다. 자못 국민체력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 또는 노동력 조정이라는 자원적 견지에서만이 아니라 근로를 존중하며 협동심 봉사심을 함양하는 정신적 요소가 중시되는 것이니 이 의미에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유력한 일부분이 된 것이다. 특히 조선과 같이 노동을 천시하고 문약퇴영(文弱退嬰)에 젖은 폐습을 타파하고 실질적으로 강건한 기풍을 고취하기에 절대로 필요하다.

조선에는 일찍이 부역(賦役)이라는 노력봉공의 제도가 있었으나 대개는 노력을 파는 노동계급의 부담에 그치고 귀인 공자(公子)는 오히려 이것을 면함을 특권시 하였었다. 그러나 대전후의 독일이 국가적 부흥은 국민의 인격적 연성(鍊成)에 있는 것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근로봉사를 균일 철저히 시행한 결과 저 독일의 과학적 진보와 함께 흥룡 독일의 오늘 날의 기초를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금후 이 운동은 일부 학생의 하기 휴가중의 일시적 과제에 그치지 않고 더욱 사회 각층에 걸쳐 광범 또 항구적으로 실행되기를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남녀노소가 동일한 기치하에 온몸으로 들어 인고단련(忍苦鍛鍊)하는 것은 무엇보다 큰 국민정신의 총동원의 실천이라 할 것이다. 아래 학무당국의 창안에 의한 근로보국대실시요목(勤勞報國隊實施要目)을 소개한다.

### [국민정신총동원 근로보국운동 요강]

#### 요지

범 정신은 물질을 살리고 물질은 정심을 포함한다. 상호 합치하여 더욱 강하게 발전하는 곳에 물심 일체의 이상의 실현을 볼 것이다. 국민정신총동원은 여사한 실제적 지도정신하에 전국민의 자발적 분기와 희생적 봉사의 열의에 의하여 비로서 진실로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향 1부락의 민중이 움직여 모든 시설, 행사의 수행에 전원이 매진하여 개개의 사람을 주로 하지 않고 전체의 협력일치를 중히 하는 곳에 인보단결(隣保團結)의 정신은 더욱 진작되고 내선인의 결합은 더욱 강화되어 어떠한 정세의 발생 또는 시간(時艱)의 습래에 대하여도 미동도 않는 국방의 근기(根基)를 확립함을 획득할 것이며 또 반도의 청소년이 국방의 일단을 부하(負荷)함과 동시에 사회봉사의 의미에서도 근로에 힘쓰는 것은 2천만 민중이 국시(國是)의 관철에 매진할 수 있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과 궁지와외의 강력한 발로로 역시 반도개발상 극히 필요함을 인식한다. 다행히 조선에는 예로부터 부역의 제도에 의하여 민중 일반이 공역봉사의 습관이 있으니 이때에 부역의 관념을 봉사의 관념에 전환하여 본 시책상에 신생명을 부여해서 애국심의 함양을 도모하고 하나는 국력의 증강에 투자하며 다른 하나는 근로애호의 습관을 조장하여 더욱 황운(皇運) 부익(扶翼)의 도(道)에 철저케 하려고 한다.

#### 목표

- 가. 국가관념의 함양, 내선일체의 심화
- 나. 근로애호, 인고단련, 희생봉공 정신의 함양
- 다. 공동일치적 행동의 훈련
- 라. 체력의 증진
- 마. 지방의 개발
- 바. 비상시국인식의 철저

#### 참가범위 및 조직

만 12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남녀는 전부 참가하기를 본 취지로 하고 부락에 있어서는 청년단, 갱생공려부락, 갱생지도부락 등 소지(素地) 있는 곳으로부터 점차 근로보국대를 결성함.

보국대에는 대기(隊旗)를 만들고 작업장, 기타 대원 집합 장소에 게양할 것으로 함.

보국대의 조직 내용에 대해서는 각지의 실정에 맞게 하기로 하고 장래 점차 통제적 지도를 가할 것으로 함.

## 봉사사항

대개 아래의 종류의 작업에 봉사케 함을 원칙으로 하나 농(어)번기에 농산어촌민의 봉사작업은 영농, 어(漁)개선에 관계있는 부락적 일제작업(모내기, 병충해구제, 액비류(液肥溜) 설치 또는 개선, 기세(磯洗), 공동양식장의 수입(手入) 등으로써 이를 대신케 함도 무방함. 단 이 경우에는 특히 위 작업을 통하여 생업보국의 정신을 부식 함양케 하기에 중점을 둘 것으로 함.

- 가. 황무지 개간
- 나. 식림, 식수
- 다. 도로, 하천 등의 개수
- 라. 지소(池沼) 또는 하천 배수로(排水路)의 준설(浚渫)
- 마. 신원(神苑)의 청소
- 바. 기타 본 운동의 목표에 합치되고 토지의 상황에 적응한 작업

## 실시방법

### 가. 지도

청년단, 향약, 진흥회 등 집단을 단위로 한 곳에서는 이들 단체의 장(長), 기타 부락에서는 당해 부락에서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로 함.

면, 읍, 도(島), 군, 부, 도(道)의 장(長)은 당해 관계구역 전반의 지도를 담당할 자로 함.

### 나. 작업

1. 부락의 애국일 행사에 본 운동을 직입(織入)하여 실시케 함은 물론 애국일의 '강화(講話)'에서는 지도자로부터 본 시책운동에 관한 취지를 철저하게 하여 근로봉사의 정성(精聖)한 정신에 대하여 강화를 함과 함께 기왕 1개월간에 한 작업의 성적에 관하여 강평을 할 것.
2. 지방의 실정에 비추어 남녀, 연령 등에 의하여 반(班)으로 나눌 수 있음.
3. 작업용 기구는 각자 지참할 것.
4. 작업회수는 지방의 실상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나 월 1회의 애국일의 집회 시에는 이를 실행케 하기로 하고 봉사시간은 매회 2시간 이상으로 지방실정에 따라 맞게 결정할 것.
5. 작업은 참가 연령 해당자의 남은 노동력을 이용하기로 하고 점차 근로량 증가의 기풍을 양성케 함. 오히려 작업 실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점에 유의할 것.
  - 1) 부자집 자제 등 근로에 서툰 자 또는 실내 노무자 등 평소 집밖 대기중에 활동하는 기회가 적은 자는 특히 참가할 필요가 있는 것.
  - 2) 일정시간은 일심불란으로 노력하는 기풍을 기를 것.
6. 작업개시 전후 보국대원 일종은 대기(隊旗)의 아래 집합하여 대장의 지휘에 따라 점호 후 농구를 손에 든 채 엄숙 진중한 태도로서 아래의 행사를 할 것.  
(애국일 당일에는 애국일의 행사에 따라 할 것으로 함)
  - 1) 황거요배(皇居遙拜)

- 2) 간단한 설화(說話)
  - 3)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서사(誓詞) 제창(국어<sup>96</sup>)를 해득치 못하는 자에도 점차 연습케 함
  - 4) 천황폐하 만세봉창
  - 5) 작업 종료 후에는 농기구를 청소하고 서로 인사한 후 해산함.
7. 보국대원은 작업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않음을 본체로 하되 이를 받을 시에는 다음에 의하여 조치할 것.
- 1) 공사(公事)에 헌금함.
  - 2) 애국저금을 함
  - 3) 보국대의 비용으로 함
  - 4) 이상 어느 것이든지 가능하나 절대로 사적인 용도에 소비치 않을 것.

이를 요컨대 본 시책은 그 작업에 의하여 재래(齎來)되는 바의 물질적 효과 뿐 아니라 이를 행함에 의하여 체득하는 각 개인의 정신적 효과를 중시하므로 작업중에는 능히 대장의 명령에 따라 규율의 유지(保持), 동작의 정연(整然)되도록 지도함과 함께 항상 정신을 쾌활(快活) 관창(寬暢)하게 하여 환희에 충만하여 근로에 종사하는 미풍을 기르도록 때때로 가요, 무용, 음악(조선민간의 것, 군가 무엇이냐 가능), 체조, 경기 등을 적절히 가미할 것도 유의함이 가함.

#### 시책의 조성

본 시책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함.

- 가. 기구류는 각자 소유의 간단한 것을 사용케 하고 기계류는 피함이 가함.
- 나. 지방 당국 및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는 개간할 임야, 황무지 등을 알선하여 될수록 무료 불하의 방법을 강구케 하고 정지(整地) 후에는 이를 부락민의 공동경작 또는 세농(細農)에 소작케 하여 그 수입을 보국대의 경비에 충용케 할 것.
- 다. 보국대 중 성적 우수한 것은 본부 및 지방 당국에서 선발 장려할 방도를 강구할 것.
- 라. 지방 당국은 지도를 겸하여 장려를 위하여 직원 출장 등의 때는 힘써 보국대의 상황을 시찰 독려케 할 것.
- 마. 본 시책의 교육적,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본부에서는 보국대 지도관계자의 실수소(實修所)<sup>97</sup>를 계획하려 한다.

이와 같이 근로보국운동은 전개되었다. 무릇 국민은 한 사람이라도 국가구성의 단위이니 신체 그것만은 만민평등이며 또한 국가를 짊어진 책임자이다. 우리는 양진일본의 내일을 생각하고 용약(勇躍) 환희(歡喜)하여 이 운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96) 일본어를 뜻함.

97) 연수소의 오기로 보임.

## 제7. 경제국책(經濟國策)에 협력 — 장기국방경제의 확립(기획원안(企劃院案)에 준거)

### 장기(長期) 또 대규모인 총력전

시국을 대관하게 되면 제국을 핵심으로 하고 만주와 중국과를 외곽으로 하는 우리 대륙의 국방과 서태평양에 있어서 우리의 바다의 국방을 완전하게 하며 일보를 나아가 일지(日支)가 서로 결합하여 명랑아시아를 창조하려고 하는 이번 사변의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이며 대규모에 미치는 종합국력의 동원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이 국가총력전—특히 경제전의 입장에서 2대 지주로서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군비(軍備)의 급속한 강화와 생산력의 비약적 확충이다.

이후의 재정경제정책은 모두 이 2대 추축(樞軸)에서 전개되어 경제를 본격적인 전시체제에 재편성하기 위한 제공작은 이 방향을 목표로 수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1. 거액인 전비(戰費)의 조달 —저축은 절대로 필요

지나사변으로 필요한 전비는 비상히 거액에 달하였다.

이미 작년 제71회 및 72회 두 번의 제국의회에 있어서 협찬을 거친 임시 군사비는 25억 원을 초과하고 다시금 올해 제73회 제국의회에서 추가된 군사비는 48억 5천만 원에 미치어서 양자를 합계하면 73억 여 만 원이라는 방대한 액수에 달한다. 이를 일러전쟁 때의 전비 15억에 비하면 5배가 되는 것을 보아도 얼마나 거대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

이것을 다시금 넓게 정부의 일반 세출로서 보게 되면 1938년도의 세출 예산은 32억 원, 여기에 임시 군사비의 본년도 추가분 48억 5천만 원을 더하면 80억 원에 달한다. 이 많은 돈이 대체 지금 부터 1개년 사이에 사용되는 것이다. 최근 연도의 세출예산을 대체로 21,2억으로 가정하게 되면 실로 그의 4배나 가깝게 된다.

이 거액인 비용의 재원으로서 제일로 고려되는 것은 조세이다. 여기에 의하여 정부는 증세를 감행하였으나 조세로서는 비용의 일부분을 충당함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은 공채(公債)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금년도 중에 발행을 예정되어 있는 공채액은 일반, 특별, 임시군사비의 각 회계를 합하면 56억이나 되어 정부는 우선 이만한 자금의 조달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요한 자금은 여기만 그치지 않는다. 일(日)만(滿)중(中)을 통한 군수공업과 여기에 관련한 시국산업의 생산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또한 다액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 이를 20억으로 가정한다 하여도 정부와 민간이 금후 1개년에 필요한 자금은 80억을 넘는다.

이 조달은 거의 전부를 국민의 저축에 의한 축적자금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원래 용이한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 매년의 국민저축은 겨우 30~40억으로 추산되므로 80억의 저축은 지금까지의 배액 이상이 된다. 국민의 저축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이번 사변에 의하여 소득이 증가한 자는 그 증가소득의 전부를 저축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소득이 별로 증가하지 않은 자도 이때 우리나라의 비상시국을 생각하여서 응분의 저축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일의 저축은 애국심의 발로이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생활수준을 인하하는 각오가 필요하다. 생활정도가 높은 자는 훨씬 저하하고 그렇게 높지 않은 더욱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여기에 필수품까지 절용하고 합리화하여 피복비, 기호품비, 식사비와 교제비, 오락비 등은 결심하고 감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을 결행함이 없이 자연에 방임하게 되면 공채는 소화되지 않고 산업자금은 조달되지 않고 정부의 자금만 산포되어 함부로 구매력을 증장하고 물자의 부족을 초래하여 물가는 폭등하고 드디어 국민 경제의 원만한 운행은 저지되며 국민생활은 이상히 압박되어 마침내는 악성 '인플레이션'의 상태를 야기함에 이를 것이니 이를 방지함에는 저축이 필요하다.

## 2. 물자수급의 조정 - 소비절약의 강행

현재의 전쟁 목적을 달성하고 전과를 속히 거두기 위해서는 군비를 급속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군수자재를 풍부히 또한 신속히 공급할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학이 비상히 진보되어 대포와 기관총 등의 화기(火器)와 항공기, 전차 등이 비상히 발달한 금일에서는 전쟁의 형태는 심히 제잡다기(製雜多岐)로 되어 여기에 필요한 군수자재도 또한 다종다양이며 따라서 막대한 양에 이르고 있다.

철강은 물론 백금, 동, 연, 아연, 주석, 니켈, 안티몬(antimony) 비철금속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등의 경금속, 석탄과 석유 등의 연료 공업염, 소다, 유산(硫酸) 암모니아 등의 화학약품, 면화, 양모, 고무, 피혁, 마, 목재, 지류 등은 중요한 군수자재이다.

이들의 물자를 풍부 신속히 군사수요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 여기에 또한 기존 물자의 배급을 원활하게 하고 이것을 군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물자에 대하여 배급의 통제가 강행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물자를 취급하는 업자가 치 배급 통제에 협력할 것을 새삼스럽게 말할 것이 없다.

특히 국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물가고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관(官), 민(民), 상(商), 공업자, 소비자가 합치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물자라 하는 것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의 빈약한 우리 나라 안에서는 그 생산을 격증하는 것을 급속으로 바랄 수 없다. 다시금 이것을 외국에 바라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방대한 군사수요에 대하여는 이러한 부족으로 종종 곤란이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자에 대한 민간수요가 금후 더욱 압축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철강에 대하여 말하게 되면 전쟁 수행에 직접 필요치 않은 건축과 토목공사를 위하여 철강재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금지되어 일용품에 사용되는 철재는 다른 대용품에 의하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동, 연, 아연, 주석 등에 대하여서도 같다. 특히 군수로써 다량으로 필요함에 불구하고 그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석유(가솔린)에 대해서는 그 한 방울은 피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고 절약하여야 한다.

이런 소비통제에 대하여는 일부만은 법규가 제정되었다. 통제를 다시 확대하여 이것을 감행함에는 금후도 종종 법규가 발령되겠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소비절약이다. 소비절약은 국민의 자제에 의하여 되도록 하여야만 한다.



### 3. 국민수지의 적합, 수출무역의 진흥

군수자재를 급속히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내생산으로는 부족하면 그것을 해외에서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히 직접의 군수자재 뿐 아니라 다시금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재도 수입에 의하여야 할 것이니 이런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국제수지를 적합하게 하고 위체(爲替)<sup>98)</sup> 시세를 유지함에 대하여 말하게 되면 입초액(入超額)은 극도로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수입도 무제한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군수자재와 생산재 이외의 수입품은 극도로 긴축하게 된다. 특히 금년 초 이래 5월까지의 수출이 10억에 부족하여 전년에 비하여 □□□천만 원 가깝게 감소하고 금후도 세계 경기의 악화, 국내의 물가 □□의 □□등으로 수출신장의 용이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게 되면 수입물자가 □□□ 다시금 □□으로 압축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생산력 확충용의 자원은 물론, 군수용 자재도 어느 정도로 억제를 받고 있는 금일 국내용 민수품이 거의 □□적으로 □□되는 운명을 난면할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다. 이 점으로 말하더라도 수입품과 수입원료에 의한 제품의 내지 소비는 극력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수지를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수입을 감소할 뿐만이 아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진흥이 깃긴(喫緊)<sup>99)</sup>의 요무(要務)로써 떠드는 소이(所以)도 여기에 있다.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조야를 움직여 각종의 방책이 안출(案出)되어 지금은 실재가(實際家)의 단행을 기다릴 뿐이라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당책자의 일층 자각과 협력에 기대함이 많다.

수출진흥의 요체는 즉 외화의 획득에 의한 수입력의 증대에 있다. 그러면 우선 국산원료에 의한 가공품의 수출에 전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산품과 수산품이 특히 작목될 것이며 해외 원료에 의한 가공품도 그것이 수출에 향하는 한은 이의 수입을 환영하는 동시에 그것을 국내에 전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후는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다.

외화의 획득이라는 점으로 말하게 되면 지금은 '엔(圓)블락' 권내에 있는 만주와 중국에의 수출은 물론 제3국에 향하도록 만전의 처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4. 생산력의 확충 - 산업보국의 실천

군수자재를 풍부 신속히 공급함에는 혹은 그 소비를 절약하고 혹은 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의 필요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다. 다시금 근본적으로 그 생산을 풍부 확실하게 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산업과 기초산업 말하자면 시국산업의 생산력을 확충하여 우리나라의 국방력의 충실을 기하고 우리 국력의 획기적 비약에 대비하여 우리 세력권 내에 있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목적을 정하고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획기적 대사업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수년을 요하는 바 우선은 4,5년을 일기(一期)로서 한(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만 아니라 상호관련하는 곳이 적지 않은 즉 당초에 전도를 예측하여 상호부합할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게 되면

98) 외환.

99) 아주 긴급(緊要)함.

만주의 산업 5개년 계획이 시사(示唆)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계획되는 산업이 금후 수년 후의 생산목표가 정해지며 따라서 금후 수년간에 확충되지 않으면 안 될 생산력이 산정되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정의 계획산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로 하는 원자료와 기계기구가 우선적으로 배급되고 소요 자금이 여기에 투입되고 필요한 기술원과 노무자가 여기에 집중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획 산업에 관한 그 생산물의 수요와 공급은 물론 그것에 사용되는 생산수단과 기술가, 노무자 따라서 소요의 자금이 이르기까지 적어도 장래 수년간 대체의 예상을 정하여 산업의 운영은 전연 이 예상 즉 전망계획 (중략)

인류생활상 하루도 불가결할 것은 물자이다. 인간으로서 물자를 애호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물자에는 군수자원도 있고 생활자원도 있다. 그리고 직접 자기이해에 고나한 것도 있고 자기이해에 무관한 것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전체로 보아서 필요한 것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이것을 애호하여야 할 것이다. 그 자원의 종류는 일일이 나열치 않는다. 세수하고 난 오수라도 화초에 주면 식물의 생장을 돕고 정원 가에 뿌리면 진애(塵埃)를 막을 것이며 쓰고 난 성냥가지도 모아두면 연료의 보족(補足)이 될 것이며 현 못(고정(古釘)) 한개도 모으면 대포가 된다.

고래로 조선은 성리편중주의의 주학(朱學)여페로 물(物)에 대한 도덕이 멸여(蔑如)하여 일반이 자원을 경솔히 하는 경향이 많았으니 종래 경제생활의 쇠퇴한 중대한 사상적 원인이 이에 있었던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이런 누습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고 일물이라도 애호하여 모든 폐물은 이것을 이용할 바를 강구하며 또는 이것을 모집하여 회수 재생의 방도를 강구하며 군용자원은 1호(戶) 1건씩이라도 폐물을 헌납하여 국가에 유용하게 하는 각오가 필요하다.

## 6. 거국일치(擧國一致) 체제의 강화

상술한 재정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다시금 나아가서 금차 성전(聖戰)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함에는 서정(庶政) 백반의 시책과 국가의 총력을 통합집결하여 거국일체가 되어 매진함이 절대로 필요하다. 국민적 단결의 위력만이 이 최고 국책의 달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 국민적 단결을 위해서는 정부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 시국의 실상을 인식케 하고 민간과 함께 힘을 나누어서 혹은 나아가 민간에게 그 업무를 맡기려고 만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각소에 참여를 하고 수소(隧所)로 민간인을 모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참으로 국민의 협력을 구하는 바이다.

이때에 있어서 국민도 또한 전력을 다하여 정부에 협력하려고 비상한 열의와 헌신을 아끼지 않기를 국가는 열망하고 있다.

협력의 도는 가까운 데 있다.

하루하루의 지출을 10원이던지 1원이던지 그것을 잘라서 저금통에 넣기를 바란다. 이 저금은 얼마 안 되어서 전비(戰費)를 조달하고 공채(公債)를 소화하여 생산력을 확충하는 자금이 되는 것이다.

국민이 매일 소모하고 있는 물자, 목면류, 모직류, 화혁 등의 혁제품과 고무제품, 가마솥 등의 금속

품, 버스와 자동차의 가솔린은 물론 석탄, 전등에 이르기까지 그 소비를 절약하고 그 신조(新調)는 극력 피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바란다. 동시에 양철관(洋鐵罐), 고과(古鍋), 연초은지를 비롯하여 현 면포, 현 고무, 휴지류에 이르기까지 없애든지 소각치 말고 즉시 불하하여 폐품회수의 방도를 강구하기 바란다. 이런 물자는 혹은 군수자재로써 긴급히 필요하며 혹은 외국 원료품에 의한 제품으로 극히 입수키 곤란한 물건이다.

특히 무역에 관계있는 업자와 시국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당업자와의 임무는 중대하다. 1원이라도 많은 외화자금을 획득하여 1톤이라도 많은 군수자재를 공급함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탄환이다.

그 직역에 복무하는 장소가 관공서든지, 학교, 은행, 회사, 상점, 공장이던지 농촌이든지 불문하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직장 직장에서 자기의 전력을 다하여 능률의 향상에 노력하여 사회봉사, 근로복구의 생각으로 이 시국에 분기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직접이던지 간접으로 국책의 수행에 협력하여 국책선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미 전선에 있는 자는 문자와 같이 불면불휴, 생명까지도 나라에 바쳐 보국의 염에 불타고 있다. 국내에 있는 자가 지력(智力) 있는 자는 그 지력을, 기능있는 자는 그 기능을, 노력있는 자는 그 노력을, 금력있는 자는 금력을 국가에 바치어 봉공(奉公)의 성의를 받드는 것은 필연 또 당연이며 국민으로서의 책무이다.

## 제8. 생활혁신 —우리 집의 총동원

마지막으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가장 적절하고 긴급한 것은 우리의 생활혁신이다. 이것은 자못 시국대책으로만이 아니라 현대의 문화인으로 또는 실동아의 주인, 세계의 지도자일 일본국민으로서의 신생활을 창정(創定)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선 전생활을 지도할 원리를 확립하여야 한다. 즉 그 하나는 혁신적 생활 의식에 철저할 것이다. 소위 취생(醉生) 몽사(夢死)로 하등 이상도 의식도 없이 그날그날을 보내는 생활은 진보도 의의(意義)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약진일본의 내일을 위한 의기의 분발이 필요하다. 한갓 전례의 구습만 묵수할 필요도 없는 동시에 외래의 유행만 추수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이상과 특수사정에 적합한 것을 취할 뿐이다. 그 둘은 국민생활의 영안(永安)을 확보할 것이니 민중생활을 극도로 억압할진대 인심은 위축 침체하여 국민정신은 도리어 쇠약할 것이다. 그 셋은 생활양식의 간단화 합리화이니 우선 당면 긴급한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주의(周衣) 폐지 : 방한용 또는 예복으로 사용하는 이외에 평상시 출입에는 일체 주의를 폐지하자.
2. 고무화 폐지 : 짚신, 목신도 좋고 포제(布製) 편리화(便利靴)도 좋다.
3. 유기(鑰器) 폐지 : 비위생적인 진유(眞鑰)식기는 이때에 신조(新造)와 구입은 단연 폐지하고, 자기 또는 목기로 대체하자. 그리고 진유류는 군수자료재로 매각 또는 헌납하자.
4. 허례(虛禮) 폐지 : 혼, 상, 제는 의례준칙에 의하고 연유(宴遊), 증답(贈答) 기타 무의미한 형식적 행사는 이때에 일체 폐지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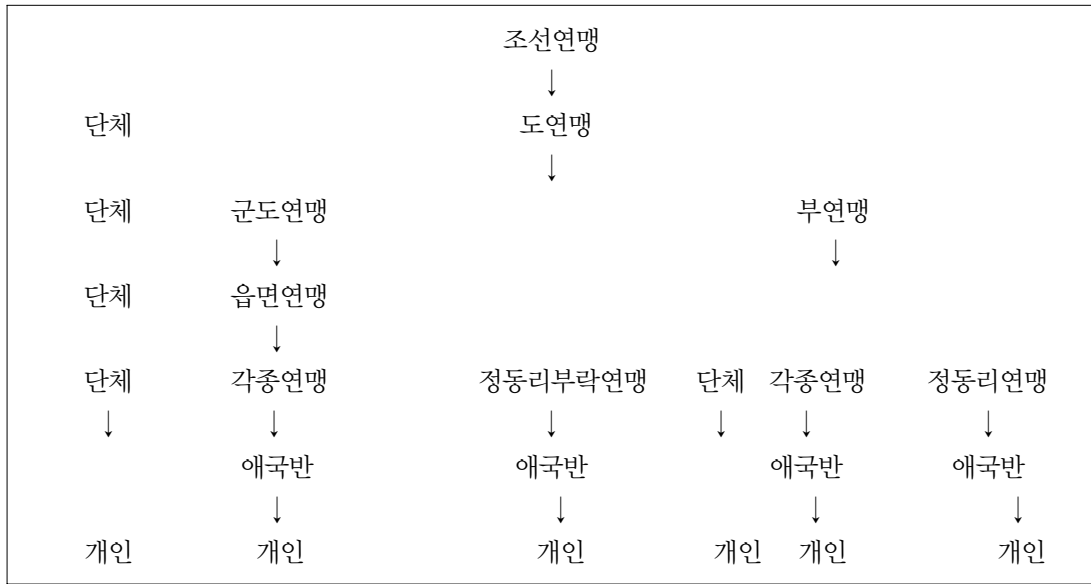
5. 시간 존중 : 정각을 엄수할 것은 물론 일촌광음도 잘 활용하자. 그리고 조침조기(早寢早起)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기타 누습 타파 : 지방을 따라 여러가지 누습이 많을 것이니 이것은 이때에 철저히 개폐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활문제는 우선 일가총동원으로 일치단결하여 이것을 개혁할 것이다. 호주가 주창하는 바를 주부가 반대하거나 주인이 하는 바를 사용인이 이해치 못하거나 하여 일가 보조가 일치되지 못하면 일가총동원태세가 오나성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실행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는 지방연맹에서 결의하여 일향이 일제 실행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조직법(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제정)]

#### 조직대강

1. 조선연맹
  - 도연맹 및 전선을 구역으로 하는 단체로서 구성함.
2. 도연맹
  - 부군도연맹 및 도를 구역으로 하는 단체로서 구성함.
3. 가. 부연맹
  - 정동리연맹 및 부를 구역으로 하는 단체, 기타 부내의 각종 연맹 및 개인으로서 구성함.
  - 나. 읍면연맹
    - 정동리 부락연맹 및 읍면내의 각종 단체, 기타 각종 연맹 및 개인으로서 구성함
4. 가. 정동리부락연맹
  - 부에서는 정동리, 읍면에서는 정동리 또는 부락을 구역으로 하고 구역 내의 개인으로서 구성함. 읍은 토지의 정황에 의하여 부연맹의 조직에 준할 수 있음.
  - 나. 각종연맹
    - 부읍면내의 관공서, 학교, 회사, 은행, 공장, 대상점 등 일상 다인수를 포용한 데서 그 □□□□인원으로서 구성함.
5. 애국반
  - 가. 정동리부락연맹 및 각종 연맹은 그 기저조직으로서 애국반을 조성할 것으로 함.
  - 나. 정동리부락연맹의 애국반은 모두 10호로서 조성할 것으로 함.
  - 다. 각종 연맹의 애국반은 해 연맹의 정황에 의하여 적절하게 구분 조성할 것으로 함.
  - 라. 애국반은 상보협력하여 본 연맹의 기저조직된 임무를 다할 것으로 함.
  - 마. 빌딩, 아파트 기타 일상 다인수를 포용한 사무소 등에서는 실정에 맞게 전 각항에 준하여 연맹 또는 애국반을 조직할 수 있음.
  - 바. 연맹의 정황에 의하여 애국반의 조성을 생략할 수 있음.  
(조직계통도는 아래와 같음)



[국민정신총동원 정동리부락연맹 규약 준칙]

제1조 본 연맹은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이라 칭함.

본 연맹의 사무소는 ○○에 설치함.

제2조 본 연맹은 내선일체 거국일치 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의 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제3조 본 연맹은 ○도 ○부 ○정 ○동리(○군도, ○읍면 ○동리 ○부락)로서 구역으로 함.

제4조 본 연맹가맹자는 모두 십호씩으로 1 애국반을 조직하고 일치단속하여 그 실천을 기할 것으로 함.

제5조 본 연맹에 아래의 역원을 설치함.

이사장 1명 이사 약간명 반장 약간명

제6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를 추천함.

이사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함.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함.

제7조 이사는 이사장이 치를 지명하고 본 연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제8조 반장은 1 애국반에 대하여 1인으로 하고 반원중에서 이사장이 이를 지명함.

반장은 반원을 통솔하고 전달, 연락에 종사함. 반장이 유고시에는 반장이 지명한 반원이 이를 대리함.

제9조 본 연맹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이사장이 이를 임면함.

부칙

본 연맹 설치 □□의 이사장은 설립 발기인에서 이를 추천함.

### [애국반 서약]

우리는 이번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에 가맹하고 ○○애국반을 조직함에 대하여는 국민정신총동원 취지에 따라 그 목적의 관철을 도모하며 각 원 일치협력하여 본 연맹 기저 단체된 임무를 다하겠기로 여기에 이를 서약함.

19 년 월 일  
연명(延命)

〈출전 : 李覺鍾 『國民精神總動員 讀本』, 京城:新民社, 1938년〉

## 13. 이숙종(李淑鍾)

### 1) 반도부인과 근로봉사

성신가정여학교장(誠信家政女學校長) 이숙종

이제 일본을 근간으로 한 세계평화의 재건운동은 중국 전체를 환희의 도가니로 만들어 순화(醇化) 건설의 여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이상 아래 게다가 희망으로 불타는 미증유의 대사업을 위해서 국가 국민의 초역에 의한 확대 강화의 기획통제가 필요하고, 한 가닥의 흐트러짐도 없는 대조직이 탄생해, 일개 작은 존재인 우리도 국가총력 총동원에 결합된 몸이 되었습니다. 저희 반도 여성은 지금까지 그 대부분이 규방에서 칩거하여 자신들이 영위하는 가정생활 이외에는 바깥 세계와 교섭하지 않고, 또 교섭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반도 여성은 비활동적인 의뢰심(依賴心)에 젖어 있었지만, 이러한 누습을 타파하고 비상시국하의 실제적 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멋진 기회가 주어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를 위해 갖가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근로봉사, 이 운동이야말로 반도의 청소년과 기타 단체에서 활기차고 눈부신 전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실로 '우리나라'<sup>100)</sup>를 위해 기쁜 일입니다. 도시에서도 지방에서도 더욱 강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만, 이 운동은 반도의 도회지의 가정(특히 지도자 계급)에 더 큰 반성과 자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 작업은 노력적인 동시에 정신적 운동입니다만, 훈련과 통제를 부인에게도 더욱 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자신의 노력의 올바름은 인식하도록 하고 존엄성을 알리는 동시에 노동의 관념을 파악케 하여 국가 관념, 그리고 사회 관념에 도달케 하여 비상시국하의 부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각시키고 싶습니다. 천업익찬(天業翼贊)

100) 일본(제국).

의 국민적 의무를 알고 여성에게도 엄숙히 그 본의를 철저히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반도 부인이 일찍이 없었던, 아니 할 수 없었던 문밖 생활이 최근 시국을 기회로 눈부신 활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견장을 차고 거리로 나서거나 국기를 선두로 집회 장소에 나가고, 또 출정군인의 환송식 등 늘름한 모습으로 조선 전체에 널리 국가 관념을 펼치고, 이를 위해 칩거의 폐해를 완전히 깬 상태가 되었음은 참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도 부인에게 근로봉사라는 것은 정신개조의 일대 시련인 동시에, 작금의 가장 긴요한 문제라고 믿습니다. 국가 미증유의 시기를 맞이해 장기 건설의 성전(聖戰)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적인 이해에 구애받지 말고 허영을 없애고 아름다운 공공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도 여성은 지금까지 인종(忍從)이나 가정의 근로에 충분히 그 천분(天分)을 다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맹종적(盲從的) 사역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결코 공공을 위해 노력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 중대한 시기에 반도 여성이 자신의 천부적인 중책을 깨닫고 과거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혹은 그 이상의 낡은 벽을 타파하고 예지와 현부(賢婦)의 미덕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가 혹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데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전 : 李淑鍾 「半島婦人と勤勞奉仕」, 『總動員』 第1卷 第3號, 1939년 8월, 28~29쪽〉

## 2) 다시 한 번 굳게 해야 할 진충보국의 결의(담화)

성신여교장 궁촌숙중(宮村淑鍾)<sup>101)</sup>

조선에도 징병령이 2년 후 부터 실시되게 된 것은 너무도 기다리던 일이라 그 감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군국의 여성을 길러낼 조선 교육계의 책임은 더욱 큰 것은 물론이나 나로서도 교육자란 입장에서 그 책임과 함께 광영을 느끼었습니다. 학교 교육이란 단지 지식의 함양에 치중하는 과거의 폐단은 근년에 와서 정신과 육체가 일체가 된 황국신민(皇國臣民) 연성(鍊成)에 주력하여 그 성과를 크게 보고 있거니와 인제부터는 더욱더 떳떳한 군인의 아내가 되고 군국의 여성을 강하고 품성이 아름다운 여성을 길러내기에 전교육계는 힘써야 될 줄 압니다. 학교교육도 필요하나 가정교육 사회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미(美)만 찾던 여성도 이제는 건강하고 투쟁력 있고 의지가 굳은 즉 군인의 아내, 군인의 어머니가 될 군세고 고결한 여성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교육에 의하여 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자인 우리의 책임도 크거니와 앞날 아내와 모성이 될 청소년 여성들은 다시 한 번 결의를 새롭게 하고 육체와 정신의 훈련을 더욱더 굳세게 해나가야 할 줄 압니다.

〈출전 : 宮村淑鍾 「다시 한번 굳게 해야 할 진충보국의 결의」, 『매일신보』, 1942년 5월 12일〉

101) 이숙중(李淑鍾)의 창씨명.

### 3) 징병과 어머니의 길 - 복종의 정신

성신가정여학교장 궁촌숙중(宮村淑鍾)

학교교육이 없던 과거에 있어서도 조선부인은 전통적 미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도덕적인 동양적 기풍은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결합으로 생각되는 것은 당시 위정자들이 정치적으로 무(武)를 가볍게 하였던 탓으로 국가의 위기를 실력으로 해결짓는 임전시(臨戰時)의 국가적 정신, 무훈적인 국가적 용기가 부족하던 것이 유감입니다. 금일과 같이 황국신민으로서 새로운 건설을 하고 있는 때에 군국(軍國)의 어머니로서 충용(忠勇)한 황병(皇兵)을 만들어야 한다는 확호한 국가적 의의를 투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손은 개인의 자손이 아니고 국가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금일의 자손은 용감한 국가적 임무를 목표로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손은 강하게 낳고 강하게 양성하여 이 강한 자제를 국가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 강한 자제를 국가에 바치려면 우선 신심이 강한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은 더 말할 나위도 못됩니다.

어머니 된 사람은 의지로 먼저 몸을 강하게 할 것은 물론이고 자기만을 위한 애정, 욕망을 깨끗이 버리고 국가를 위한 용감하고 희생적인 봉사의 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삼종지교(三從之教)라 하여 예로부터 여자는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젊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자손을 따르는 정신, 이 따르는 정신이 포함하고 있는 희생적 정신, 복종의 정신은 따르면서 큰 교훈을 자손에게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르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라는 이 정신을 살리려면 우리가 늘 탐닉하기 쉬운 자애(慈愛)에 흡수당하지 말 것이고 이것을 판단할 만한 이성을 깨끗이 지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요구하는 '정의감 있는 의분성(義憤性) 있는' 아들을 양성하려면 어머니 되신 분의 국가관념은 물론 투철해야 하겠지만 어질고 좀 더 총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동고(東郷) 원수의 부인이라고 기억합니다. 그이는 자기의 자식이 어렸을 때 잠자고 있는 아들의 머리맡을 함부로 지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래의 군인, 폐하의 충용한 황군이 될 존귀한 몸이라고 해서 자기자식이나 함부로 머리맡을 지나지 않았다는 군인의 어머니로서의 이 신념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 것들이 싸움이나 혹은 그릇된 짓을 하면 '훌륭한 군인이 못된다. 그래선 대장이 못된다.'하고 지도하며 완구물도 또한 총과 검, 군함과 대포 등을 주면서 무훈을 목표로 아동을 양성하던 것이 제가 지나사면 전까지 일본에서 보고 온 일본부인이었습니다.

일본부인의 군국적 의기는 참으로 모범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고 세밀하고 섬세한 감정 가운데 현명하고 강건한 태도는 일본인만의 아들다움이며 동양사람 만의 특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공(奉公), 염치(廉恥), 질서, 지혜, 인정(人情)있는 생활, 계획과 목적 있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출전 : 宮村淑鍾 「徵兵과 어머니의 길-服從의 精神」, 『春秋』 第5卷 制1號, 1944년 1월, 70~71쪽)



## 14. 이윤종(李允鍾)

### 1) 경제신체제의 이념

매일신보사 이윤종

#### 신체제와 구체제

신체제를 말하기 전에 구체제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볼까 한다.

“무어, 지금까지 겪어온 것이 신체제이지”하면 아주 간단할는지 모르지만, 기실 무엇인지 모르고 겪어왔고 또 알아도 좋은 것으로만 알고 지내온 것이니까 그렇게만 말해 가지고는 분명치 못하다.

그러면 무엇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라면 자기 즉 한 사인(私人)만 알고 살아온 것이 구체제에 의한 생활방식이다. 이 말은 물론 자기 한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은 죽든 살든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하여도 좋다는 극단으로 하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러한 것이 인생의 활동 중 경제방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얼핏 듣기에는 무슨 함부로 폭리를 탐하거나 흉악한 고리대금을 하거나 또는 깨진 물건을 성한 것처럼 해서 속이는 등, 참으로 미개(未開)하던 시대의 산업만을 가지고 하는 말인가 의심할는지 모른다. 그런 것은 아니다. 기실 근대의 발달된 산업계로 말하면 그와 같이 신용없고 무리한 짓을 해서는 그 경영을 유지해 갈 수 없을 만큼 상업도덕이 발달되었으니까 이점은 그리 염려치 않아도 좋다.

그러나 그들이 상업이나, 기타 시작할 때에 이일이 국가에 어떠한 공헌을 하는 것이며, 또는 일반에게 얼마나 편리를 줄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오직 이러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겠다는 동기에서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사리를 목적하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사업에 착수할 당초부터 남을 해롭게 하거나 심하게는 국가에 해되는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 예를 들면 사기취재를 쓴다거나 금밀수출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하면, 이것은 단순한 파렴치적 범죄행위지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순연한 기업적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 출발점이 사리를 추궁함에 있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익을 염두에 둘 것까지는 없고 심하게는 무시되고 내지 해롭게 함에 의하여 자기의 이익이 보장될 경우 까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를 근거로 하여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국가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라도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업에 착수할 사람이 없을 것이요. 반대로 자신에 이익되는 사업이라면 국가에는 이익 될 것이 없는 것일지라도 열심히 경영하려 들 것이다.

이런 것이 일개 사인(私人) 자기로서만 볼 때에는 아주 당연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극히 질서 없고 혼돈한 상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즉 구체제다. 더욱 경제적으로 본 그것이다.

## 자유주의경제론

이러한 사상이 어디서 근거되었느냐 하면 소위 자유방임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이 자유방임주의 경제사조(經濟思潮)의 극히 쉬운 부분을 들어보면 이러하다.

즉 각 사람의 경제활동에 대하여는 구태여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들이 제 각각 이롭다고 생각하는 행동만 하면 좋다. 남의 이해나 국가의 공익을 염두해 두지 않더라도 저절로 다른 사람도 이롭게 되고, 공익도 유지된다고 하였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기 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별로 이익 될 것 같지 않아서 아무도 착수치 않는 경우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그 일에 착수한다면 그야말로 독점사업이 되기 때문에 의외의 이익을 보게 되어 그 뒤에는 여러 사람이 모두 이 일에 착수케 되어 저절로 생산이 왕성해지고 따라서 국가공익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경우에도 이것을 국가가 간섭하여 억압할 필요는 없다. 제대로 내버려두면 다른 상인들도 물건을 비싸게 팔려고 그 곳으로만 피어들어 그 소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어 물가는 저절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그렇기도 하였다. 아마 많은 상인 중에는 이 이치가 옳다거나 혹은 희망할 이가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아주 망상이다.

하여튼 이상과 같은 것이 지금까지 행하여온 자유경제 조직이다. 결국 자유주의는 즉 구체제다.

이 자유주의사상은 경제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정치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보지 못한 큰 사업이요, 또 가장 영예스러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렇고 보니 이것을 성취하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또 아무리 고생이 된다할지라도 구가의 모든 힘을 다하여 즉 총력을 집중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 경제신체제의 방향

이때에 있어서 저 자유주의, 다시 말하면 구체제의 관념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찌될 것인가. 즉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사익(私益)만 위하여 활동하고 국가의 공익은 생각지 않고 나간다면 어찌될 것인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일지라도 자기에 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도 하지 않고 한편에서는 국가에 필요없는 사업일지라도 자기에 이가되면 하도록 방임하여 둔다면 어찌될 것인가.

지금 물가가 귀하다는 것, 또 각반 물자가 귀하다는 것, 또 각반물자가 더욱 더욱 필요케 된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동아신질서 건설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면 따라서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조각의 철이나, 한 방울의 석유가 군사상 얼마나 긴요한 것인데 이것을 군수나 생산확충 이외에 써도 관계없고 안 써도 무방한 방면에 일사인(一私人)이 이익된다고 써버린다면 이것은 그만큼 군수와 생산확충에는 쓸 것도 못쓰게 되는 것이다. 곧 국가와 공익을 해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구체제는 방금 우리나라가 해나가는 일에 큰 상해를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익추구를 토대로 한 자유주의 경제사상은 국가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고 구체제와 자유주의의 반대방향인 신체제 즉, 공익을 토대로 한 경제조직이 아니면 안 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익추구를 토대로 한 자유주의 경제사상은 국가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고 구체제와 자유주의의 반대방향인 신체제 즉 공익을 토대로 한 경제조직이 아니면 안 되게 된 것이다.

### 경제신체제의 목적

위에서 한 말을 가지고라도 신체제, 특히 경제신체제에 대한 윤곽은 짐작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시 작년 12월 7일 각의(閣議)에서 결정된 경제신체제확립요강을 가지고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이 요강 중 기본 방침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즉 일만지(日滿支)를 일관(一貫)하고, 대동아를 포용하여 자급자족의 공영권을 확립하고 권내(圈內)에 있어서의 자원에 기하여 국방경제의 자립제를 확보하고 관민협력하에 중요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종합적 계획경제를 수행하여서 시국의 긴급함에 대처하므로 국방국가체제의 완성에 이바지하고 군비의 충실, 국민생활의 안정, 국민경제의 항구적(恒久的) 번영을 도모, 그리하여 소위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의하여 활동하던 정당정치는 이에 근거를 둔 것이다. 따라서 정당정치도 구체제가 되는 것이다.

### 신체제의 필요성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생각할 것은 위에서 말한 구체제를 그대로 두어서 옳을 것인가. 말부터가 구체제이니 지금에 소용없게 된 것은 짐작할 수 있지만 무슨 까닭에 소용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잠깐 들여보자. 이것은 동시에 신체제가 필요케 된 이유도 되는 것이다.

일찍 만주사변(滿洲事變)이 생겼을 때 또다시 지나사변(支那事變)이 생겼을 때까지도 시국이 중대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금일과 같은 인식을 일반적으로는 마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나서 일독이(日獨伊)를 중심으로 한 추축(樞軸)과 영미(英米)를 중심으로 한 추축이 전연 분립상태에 있게 되어 유럽은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신질서를 건설케 되고, 동아시아의 신질서는 제국을 중심으로 하여 건설케 되었다.

신질서라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지금까지는 영미가 제 마음대로 제 이익만 위하여 흑작질 하던 것을 못하게 하고 유럽은 유럽 사람 본위의 유럽, 동아시아는 동아시아인 본위의 동아시아를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무방한 것이다. 이런 사업을 왜 우리나라에서 해야 하겠느냐 하면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지식로나 물질로나 약소한 탓으로 제 힘으로만은 할 수가 없으므로 제국이 수고를 같이 하고 원조를 해 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고 보니 우리나라의 책임은 극히 중대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만주국이 오늘날 잘 성장하고 있는 이면에는 일본이 정신상으로 물질 상으로 많은 원조를 하였기 때문이요. 또 중국에는 남경에 국민정부가 새로 생겨 바로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조약까지 체결하여 손을 맞잡고 대동아건설에 매진키로 되었으니 역시 우리나라에서 정신으로 물질로 원조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한편에는 장개석정권이 의연히 항전을 하고 있어서 동아시아건설사업을 방해하고 있으니 이것을 격멸하기 전까지는 전쟁행위를 계속하여야 하겠고, 또 우리 동아시아사람이 하는 사업을 시기하여서 방해하려는 소위 적성국가(敵性國家)에 대하여는 방비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되겠으므로 군비를 더

욱더욱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적성 국가들이 우리나라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물자를 안주려고 할 것으로 당연하므로 우리 편에서는 남의 손에서 물자를 얻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내는 물자만 가지고는 넉넉히 우리 동아시아인의 수요를 채울 만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동아공영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하려 한다 운운하였다. 여기에 의하면 경제 신체제의 기본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구체제경제와는 판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중에도 종합적 경제수행이라는 말이 있다. 그 의미는 계획적으로 경제정책을 진행하게 개개의 계획은 못쓰고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목적에 맞도록 계획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제멋대로 이익만 “취해서 활동하던 구체제와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또 국방 국가체제의 완성에 이바지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긴급한 일이다.

국방국가를 완성치 않으면 다른 일도 해 갈 수 없는 것이니 여기서 경제신체제가 무엇이나 하면, 먼저 국가목적에 맞도록 하는 경제라 할 것이요. 국가목적이 무엇이나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국방국가체제의 완성에 있다 할 것이니 결국은 경제신체제는 고도국방국가건설을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 계획경제와 지도자

그리고 또 이 요강에는 기본방침을 완수키 위하여 다시 세목을 들었는데 그중에는 공익우선에 관한 것을 특히 말해 놓았다. 즉 ‘직분봉공(職分奉公)의 취지에 좇아 국민경제를 지도하는 동시에 경제단체의 편성에 의하여 국민경제로 하여금 유기적(有機的) 일체로써 국가의 총력을 발휘하여 고도국방의 국가목적 달성을 요한다.’ 운운 하였다. 여기에 의하면 경제활동을 단순한 사익을 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봉공의 행동으로 보았다. 즉 공익우선에 중점을 둔 것이 구체제와 전혀 반대다. 그리고 ‘유기적 일체’란 말은 자유주의경제에서 제멋대로 사리를 위하여 질서도 없고 혼돈상태로 해가던 것을 부인한 것이다.

위에 소개한 기본방침은 요강의 원문의 일부이기로 옮겨 베낀 것이다.

그리고 이 경제 신체제 요강 중에 한두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들어보면 지도자원리라는 것이 있다. 위의 공익우선에 관한 설명 중에도 ‘국민경제를 지도’ 운운의 구절이 있고 또 그 외에 ‘경제단체’에 관한 것 중에는 “경제단체는 업자의 추천에 기하여 정부가 인가하는 이사자(理事者) 지도 밑에서 이를 운영함”이라고 하였다.

이런 것은 어느 범위까지는 종래에도 그러하였지만 경제 신체제에는 특히 이 원리를 확립한 것이요. 즉 국가의 경제는 지도자에 의하여 운행케 되는 것이다.

어째서 이 지도자가 필요하나 하면 쉽게 말하면 공익우선원칙 아래에서 고도국방국가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과연 어떻게 하여서 공익에 맞으며 또는 어떻게 하여야 국방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각 개인이나 각 단체가 제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될 수 없는 것이요.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실행할 최고의 지도자가 없다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종합적 계획경제를 실행하려면 일정한 지도자 원리에 의하여 지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이 최고의 지도자는 정부요, 지도자원리는 직분봉공의 취지에 기한 것, 즉 공익우선 또다시 말하면 종래와 같이 이윤획득에 기한 경제기구가 아니요, 국가사회의 전체로서 발전의 목표로 한 것이라야

될 것이다.

## 기업의 우위와 능률

그 외에 주목할 것은 ‘기업의 우위’를 인정한 것이다.

종래로 말하면 경영은 자본에 종속된 것 밖에 안 되던 것을 신체제에는 ‘기업담당자’라는 문구로 기업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물론 자본과 경영을 전혀 분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기업 즉 경영방면에 우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만일 기업이 순연히 자본의 한 종속물로 되어 있으면 기업은 자본이 목적하는바 다시 말하면 이윤추구에만 쫓리게 되기 때문이다.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자본이 요구하는 바의 이윤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국가목적에 맞춰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경영 그자의 지위를 높여놓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보니 한 회사에 종업하는 사원이나 노동자가 전에는 회사를 위하여 일한다는 이념이 앞섰었지만 이제는 국가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으로 된 것이다. 따라서 전에는 회사를 위한다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많이 시킨다고 불평도 있고 괴롭다고도 하고 급료가 적다고 원망도 하였지만 이제는 국가를 위한다는 영예스럽고 유쾌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보니 종래에는 월급이면 월급, 일급이면 일급을 주니까 일한다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받는 급료에 해당(실제에 측정할 수는 없지만)할 만큼 일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급료를 주니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나라를 위하여 하고, 급료는 오직 생활을 해가려니까 받는 데 지나지 않게 된다. 이러하니까 일을 하는 데 훨씬 능률을 낼 수 있어 국방국가건설에 적응한 체제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경제 신체제라는 것은 고도국방의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경제로서 오직 한 뜻으로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자유주의경제 아래서 기업이나 생산 그 것에는 아무 흥미도 감격도 없이 사리추구에 지배되어 오던 경제체는 이제야 공익우선의 직분봉공을 할 수 있는 영예와 자량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대동아의 건설과 국민경제, 항구의 번영을 도하면서 매진하는 것이다.

〈출전 : 李允鍾 「經濟新體制의 理念」, 『新時代』 1941년 2월호, 84~89쪽〉

## 2) 「재정금융기본방책요강」 완성, 폭리취체령의 강화

宮村允鍾(宮村允鍾)<sup>102)</sup>

### 「재정금융기본방책요강」 완성

지난 7월 11일 정례 각료회의에서 「재정금융기본방책요강」이 결정·발표되었다. 본 요강이야말로 재

102) 이윤중(李允鍾)의 창씨명.

정금융 방면의 고도국방국가체제 확립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개요를 해설하고자 한다. 「경제 신체제 확립 요강」이 작년 12월 7일 결정·발표된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은데, 이것은 경제 신체제하의 국가산업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침을 나타낸 것이고, 또 이번 요강은 재정금융 부문의 기본방침을 결정한 것인데, 실로 전자와 나란히 양쪽 바퀴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본 요강의 내용을 크게 구분하면, (1) 국가자금동원 계획, (2) 재정정책의 개혁, (3) 금융정책의 개혁이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고, 종합계획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려는 것이다.

첫째, 국가 자금동원 계획이라는 것은 ……(판독불가)…… 그 범위 내에서 재정자금—즉 국가의 예산에 넣을 자금, 산업자금, 국민의 소비자금, 즉 우리 일상생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의 세 가지로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성과 합리성을 철저히 한 뒤 국가의 자금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장래 전망을 세우려는 것으로, 우리나라 재정의 건실화를 의미하는 것에 다를 아니다. 둘째, 재정 정책의 개혁에서 유일한 특징은 첫 번째의 국가 자금동원 계획에서 매년 예산 총액이 책정되는 것, 즉 국가예산은 미리 그 금액이 결정되고 이를 단지 각 성(省)에 각 목적에 따라 분배하면 된다는 지극히 원활한 방식이다. 이 항목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요강 가운데 세계개혁의 항목 중에 ‘재정자금의 소요에 따라 매년도 조세를 증감하는 방침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1년간 변경할 수 없고, 또 세율을 개정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등 상당히 번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급변하는 재정수요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리 세율을 어느 정도의 폭을 두고 재정의 수요에 따라 적절히 세율을 신축하는 길을 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방침은 내년도부터 실행될 것이라 한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앞서 언급한 세율에 신축성을 두는 것만으로 곧바로 증세라든가 감세를 숙단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세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뿐이고, 오히려 기대되는 ……(판독불가)…… 셋째, 금융 정책의 개혁은 산업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앞으로는 한층 더 공익적·계획적이고 통일적으로 실시해 국가 목적에 전면적으로 부응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인 각 은행들은 독자적인 활동과 책임은 끝까지 조장하고, 다만 은행의 활동 그 자체를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함으로써 생산 확충의 결실을 순조롭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 확충, 물가 정책의 견지에서 유희시설, 즉 생산설비는 갖추어져 있어도 자금이 없어서 그것을 돌려두는 경우 등에는 그 설비를 유무상통(有無相通)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가 신용을 빌려주어 자금난을 구제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기업을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위임 경영하도록 한다는, 이른바 국유민영의 길을 열게 된 것이다.

이상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재정금융 기본방침 요강의 해설을 시도했는데, 명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분히 개념적이기 때문에 해설도 난해한 느낌이 있겠지만, 요컨대 본 요강은 재정금융 정책을 국가 목적에 따라 계획적·통일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건실화, 생산 확충의 달성, 물가 정책의 확립, 인플레이의 억지 등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매우 많고, 앞으로 방침의 구체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고도국방국가체제는 경영 방면에서 영혼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폭리취체령의 강화

폭리취체령—상세히 말하자면 「폭리행위 취체규칙(暴利行爲取締規則)」을 개정 ……(판독불가)…… 일본 내지의 뒤를 이어 개정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도 반도의 사정에 비추어 약간의 강화를 하게 되었을 뿐이다. 지금 그 내용을 상세히 논하기 전에 본 규칙의 변천에 대하여 약간 언급하고 이번 개정에 이르게 된 실상을 밝히도록 하자. 이번 개정은 공포 이래 여섯 번째가 되는데, 이 규칙이 이른바 폭리취체령이라 불린다. 농상무성령(農商務省令)으로서는 처음 탄생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 말기인 1917년 9월 1일 당시의 쌀 가격 폭등 억제를 위해 공포한 것이다.

그 이후 제1차 강화가 사변이 발발한 1937년 8월 3일, 1938년 7월, 1939년 12월 26일에는 전문에 철저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제5차 개정은 작년 6월로, 예의 ‘정지’·‘공정’ 등을 정가표로 표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가격 취체의 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후 조선에서도 일본 내지와 보조를 맞추어 적절히 개정해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 내용에서, 최근 물자부족 내지 배급기구의 불비(不備)로 인해 이른바 매점매석 등의 행위가 급증하고, 또는 끼워팔기(添賣) 혹은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물품을 파는 등의 부담 조건부 판매가 횡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더욱 강화한 것이고, 그 요점을 든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종래에는 폭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매점매석을 단속했지만 이번에는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관한 이상은 설령 폭리의 목적이 없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물품의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2) 종래에는 단속이 없었던 끼워 팔기(가령 ……(판독불가)…… 같은 경우) 및 부담 조건부 판매를 새로이 금지한다.

3) 종래에는 부당한 보수를 취하고 있는 악질적인 브로커의 단속은 물품 브로커만 한정해서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알선에도 확대하여 이를 단속하게 되었다.

이상은 일본 내지에서 실시된 개정 폭리령인데, 조선에서는 이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첫 번째의 매점 단속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매점도 단속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본 내지의 개정 외의 공정가격의 지정품목은 폭리단속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조선에서는 이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요컨대 이상의 매점매석 등의 행위는 물자의 편재를 조장하고 또 가격통제를 문란케 하고, 부담 조건부 판매 같은 경우에 배급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시국하에서 심히 증오할 만한 반국책적 행위이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에서는 일반인의 매점까지 단속할 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모든 사람이 매점을 하면 물자가 아무리 있어도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평시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곤란한데, 하물며 전시하에서 이와 같은 어리석고 횡포한 짓을 저지르는 것은 총후(銃後) 국민의 큰 치욕이다. 관헌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빼기 전에 총후 국민들은 국민의 의무를 자각하고 충분히 삼가서 타인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치욕을 받지 않도록 자계(自戒)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출전 : 宮村允鍾 「經濟時事 解説—財政金融基本方策要綱成る/暴利取締令の強化」, 『國民總力』 第3卷 第8號, 1941년 8월, 28~32쪽〉

## 15. 이창근(李昌根)

### 1) 획기적인 학제개혁 전 반도에 끓어오르는 찬가 - 반도통치의 추진력

경상북도 참여관 이창근

미나미(南) 총독각하는 착임 당시부터 “내선융화(內鮮融和) 운운은 서먹서먹한 느낌이 든다. 일본 내지와 조선은 이미 일체이다”라는 의미의 말을 가장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반도 민중의 친근감과 감사한 몸매 받고 있었는데, 이번 지원병제도의 실시 및 학제개혁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시게 되면서 민중은 더욱 총독각하의 진의를 이해하고 황송함과 고마움에 완전히 감격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지금까지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던 일말의 현안을 근본적으로 일소하고 순진한 마음가짐으로 일사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서의 자각을 새로이 하고 있음은 경축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조선민중은 종래에 교육기관의 부족에 대해 상당한 불만 및 원망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물론 시정(施政)의 전체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설령 가난하더라도, 굶주림에 허덕이더라도 자신의 자식에게 학문을 시키고 싶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며 기뻐하고 있던 순진한 아이들이 입학을 거절당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의 부모 마음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심정이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상으로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보건대 이번 학제개혁 소식을 접하고 크게 기뻐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아울러 조선 통치라는 입장에서 보면 본 시설은 반도 민중들의 소질 향상과 실력 연성을 그만큼 급속히 실현시킴으로써 반도 민중의 사회적·문화적 내지 경제적 수준을 일본 내지 동포들의 수준에 다가서게 함으로써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결실을 겨두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먼저 무지라는 것을 민중에게서 제거해야 한다. 무지한 자에게 천 엔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보다 아는 자에게 한 마디 조언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가령 반도의 민중 절반이 모두 보통학교를 졸업했다고 가정한다면 산업, 토목, 의료, 기타 시설비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도 현재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총독각하는 “내지인은 우월감을 버리고 조선인은 비뚤어진 성격을 청산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참으로 적절한 말씀으로 일본 내지와 조선 동포들은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는 내지와 조선의 동포들의 생활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이상이 달성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생각에서 반도 동포는 이 기회에 더욱 황국신민으로서의 각성에 노력하고 명실 공히 황국신민으로서의 소질과 실력을 갖추도록 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바이다.

〈출전 : 李昌根 「画期的の学制改革 全半島に沸る賛歌 - 半島統治の推進力」, 『京城日報』, 1938년 2월 18일〉



## 16. 이창수(李昌洙)

### 1) 대화일치(大和一致)와 전의(戰意) 양양

#### 1.

고이소(小磯) 수상은 미증유의 국난을 돌파하는 길은 국민대화일치(國民大和一致) 적 미영(米英)의 반공(反攻)을 격쇄(擊碎)하는 데 있다고 말하였고, 아베(阿部)조선총독은 부임 초에 행정의 신조로 '성(誠)'을 말한 다음 전력급증, 사기양양(士氣昂揚)을 강조하였다. 대화일치나 '성'이 모두 그 표현은 다르나 궁극 인(人)의 화(和)를 그 기초로 함에는 차이가 없다. 자고로 천시(天時)는 지리(地理)만 같지 못하고 지리는 인의 화만 같지 못하다는 말이 있거니와 오늘날 전력을 급속히 증가시켜서 적의 반공을 격파함에는 무엇보다도 인의 화가 가장 필요하다. 지나사변(支那事變)이 일어난 뒤로 역대 내각이 전쟁수행의 기초로 삼아온 것은 각 내각에 따라서 달랐으나 이것은 대별(大別)하면 지나사변 당초에는 자금문제가 중요시되었다. 즉 사변 초에 전력증강의 중요한 부분이 외국 무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전쟁경제의 기초를 자연 자금문제 위에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전력의 기초가 되는 각종자재를 대량으로 수입(輸入)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당면의 현안이 되었고 외화획득, 위체(爲替)유지가 중심문제가 되었다. 다음으로 사변이 진행됨에 따라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점점 곤란하게 되고 이어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외국무역을 떠나서 대동아공영권 내에 부존(賦存)한 물자를 중심으로 전시생산계획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즉 전쟁수행의 중심문제는 '금(金)'을 떠나서 '물(物)'로 이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국의 요구는 물보다는 사람문제로 전환한 느낌이 있다. 물론 우리의 전력이 적 미영의 그것과 비교하여보면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 미영이 아무리 물자가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적은 반추축진영(反樞軸陣營)의 병기창(兵器廠)의 역할을 맡아하고 있는 만큼 영국(英國), 중경(中慶), 소련(蘇聯) 등 기타 각처로 군수품 내지 생활필수품까지 공급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는 전선으로 공급되는 물자에는 자연 한도가 있다. 또 우리나라가 물자가 넉넉지 못하다 하더라도 적과 싸워서 패하지 않을 만큼은 물자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문제는 물자의 다소 여하에 있지 않고, 사람문제에 있다. 일국의 전력은 자원은 대소에만 의하지 않는다. 개인의 충실, 열성여하와 국민의 기백, 분투정신 여하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원자체는 직접 전력이 되지 못한다. 반드시 국민의 열과 성을 담은 생산면을 통해야만 전력이 된다. 그리고 국민의 기백과 분투정신은 결국 대화일치에 의해서만 발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력은 국민의 대화일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적 미영이 가장 믿고 있는 것은 물량에 있으므로 우리도 적에게 지지 않을 만한 물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산증강에 힘쓸 것은 물론이나 물량이나 물량을 풍부히 하는데도 웅대한 작전을 전개하는데도 그 원동력은 사람에게 있다. 또 국민이 서로 일치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성과 열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2에 2를 곱하여 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능률과 효력의 배가(倍加)를 기할 수는 없다. 만일 국민이 대화일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서로 협심진력한다면 2에 2를 곱해서 1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2인을 태운 우리 특별

잠항함(特別潛航艦)은 능히 3만 톤급의 적의 전함을 격침할 수 있는 것이며, 지나사변 이래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능히 아의 과(寡)로써 적의 중(衆)을 무찌를 것이다. 결국 국민의 대화일치가 있어야만 우리는 전쟁을 완수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고이소 총리대신이 대화일치의 필요를 강조한 까닭이 있다.

## 2.

대화일치란 강연이나 라디오 또는 포스터로만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대화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억 국민의 마을을 필승의 일점으로 결집할 만한 구체적 대책이 강구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 내각에서 착착 고구(考究)하여 실천으로 옮기고 있으나 그 대책이 먼저 말단 행정기구에까지 침투해서 내각의 기도와 목적이 직접 하급관리에게까지 전달되고 투철(透徹)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 제국의 전쟁정치는 법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래 경제, 노무, 자재, 징세(徵稅), 취체(取締) 등 제 법규가 수차 실시되어 거의 완벽에 가깝다. 즉 사람과 물질을 어떻게 배치한다든가, 기구를 어떻게 만든다든가, 세를 어떻게 징수한다든가, 위법행위는 어떻게 처치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조금도 유루(遺漏)<sup>103)</sup> 없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요는 결국 사람문제에 있는 것으로 배치된 사람의 물과 기구를 운용하는 그 태도여하에 따라서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일선 행정기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들의 심중에 있는 정열을 양양하여 그 정열을 정당한 방향으로 향해서 발휘하도록 유도해야만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먼저 관계(官界)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어야만 대화일치, 전의양양, 생산증강의 진체(眞諦)가 비로소 침윤 철저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민중지도자들의 덕의심(德義心)을 환기하여야 한다. 민중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전시생활문제, 방공문제 기타 전력증강에 대한 모든 조치(措置)에 있어서 솔선수범 실천공행(實踐躬行)의 태도를 가져야만 대화일치의 결실을 들어낼 수 있다. 민중을 향하여 실천하기를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도자 자신이 솔선하여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군을 쳐부수기 위하여 광란 노도를 헤치고 적진 도하를 하는 때에 지도자 자신이 먼저 사지에 서서 병(兵)을 격려하듯이 민중의 지도자도 그런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 만일 지도자 자신은 언덕 위의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만 보고 급류를 헤치고 나가려면 일억일심, 대화일치의 총력이 발휘되지 않을 것이다. 또 지도자는 민중의 오해를 사서도 안 된다. 옛말에도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든가,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는 말이 있거니와 지도자는 무슨 일이든지 민중의 오해를 받을만한 일이면 하지 말아야만 비로소 민중의 신뢰를 얻는다. 만일 지도자 자신은 풍부한 물자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타인만 보고 절약을 하라든가 매점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의 말을 한다면 지도자의 성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오해를 사기가 쉽다. 국민이 대화일치로 적을 쳐부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들의 덕의심에 기한 솔선수범, 실천공행이 있어야만 한다. 끝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희망과 감격에 불타게 하여 인심의 활달명랑, 화기의 경지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으로 하여금 희망을 품고 감격에 불타면서 활동하도록 해야만 비로소 국가의 위대한 총력이 발휘될 것이며, 대화일치, 사기양양의 효과를 기

103) 빠져 나가거나 새어 나감.

대할 수 있다. 비록 국가의 신시책, 신기구가 여하히 형식적으로 체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이 활달명랑하지 못하다면 국가의 약동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전력을 증대하기 위한 활력이 연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의 마음을 명랑화 하자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하면 국민의 전생활에 조금도 이상(異狀)이 없도록 안정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정부에서는 국민전시하 우리 국민의 생활에는 반석과 같은 안전감을 가지고 있는 바이나 대화일치의 기저가 국민생활의 안정강화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더욱 더욱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3.

다음 국민도 맹목적으로 관의 지도에 따르는 것보다 먼저 금번 태평양전쟁의 성격을 알고 우리가 이 전쟁에 지면은 어떠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해야만 참다운 군, 관, 민 일체가 실현될 것이며 대화일치, 전의양양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 태평양전쟁의 성격은 어떠한 것인가 태평양전쟁의 목적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광의 동아시아의 야망을 타도하고 일본의 도의에 기초한 동아신 질서를 건설하여 동아시아 제민족으로 하여금 각각 그 도(堵)에 편안하게 하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정의에 입각하여 싸우는 일본의 중국에 있어서 미영을 쳐부수고 세계 신질서 건설에 위대한 공헌을 할 것은 필연의 귀결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중국의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동아의 민족이 미영의 독아(毒牙)에 걸려서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국민으로서 이 점을 깨닫는다면 관 당국과 일심일체가 되어서 이 전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또 둘째로는 이 전쟁은 군인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오늘날 국민전체가 전투배치에서 있는 것은 비교하여 말하면 군함승조원 전부가 전투에 참가해서 군함과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것과 같다. 군함에서는 포탑(砲塔)에서 대포를 조작(操作)하는 사람이다. 병기를 수선하는 승조원이나 또는 밥을 짓는 사람이나 화부(火夫)가 다 같이 전투원인 것과 같이 농부나 광부 또는 직공 등이 그 직업의 역할을 불구하고 모두 오늘날 국가총력전의 전투에 참가하여 있다. 국민 각 개인의 힘은 적은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우나 실은 상상이상으로 큰 것이다. 비가 내린다고 해서 또는 경제상으로 여유가 조금 있다고 해서 직공엔 가지 않고 논다면 전력증강에 큰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 쉬는 사람은 나 한사람쯤 논다고 국가에 그다지 큰 영향이야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근할지 모르나 만일 전 공장 직공이 모두 이 같은 마음으로 태업(怠業)을 한다면 그 영향은 실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암취인이라든가 기타의 비국민적 행위를 하는 것도 요는 자기 한사람의 행동쯤이야 전쟁에 대해서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만일 자기가 국가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상 생각한다면 국민은 전장의 용사와 같은 희생심을 진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제일선 장병의 임무로만 생각지 말고 국민 전부가 전투원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해서 건전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에 충후의 친절운동 같은 것을 강조하고 그 운동주관을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에서 실시한 일이 있거니와 원래 동방예의의 나라라는 이름이 있고 또 타인에게 겸양친절하는 것을 도덕의 근원으로 삼아온 우리가 근래에 이르러서 친절운동까지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은 큰 수치다. 자아를 버리고 사리사욕과 독선주의를 경계하며 서로

겸양친절히 해 나아가야만 총후의 단결이 굳어지고 대화일치, 전력을 증강할 수 있다. 요컨대 대화일치의 정신은 군관민 일치협력으로써 비로소 그 실현을 볼 수 있다.

〈출전 : 李昌洙 「大和一致와 戰意昂揚」, 『新時代』 第4卷 第9號, 1944년 9월, 20~23쪽〉

## 17. 임숙재(任淑宰)

### 1) 필승태세하의 반도국민에게 - 만대의 유산을 남기자

숙명여자전문학교 교수 풍천숙재(豊川淑宰)<sup>104)</sup>

#### 반도 1천 2백만 부인에게

세계에서 돈이 많고 강한 나라라고 이르던 미국과 영국, 비행기와 군함이 많기로 세계에서 제일되는 그 나라를 우리나라가 용감하게도 개전한지 며칠이 못되어서 그 군함과 비행기를 반수 이상이나 폭격해 버렸습니다. 영국이 우리 동양을 일세기라는 긴 세월을 두고 갖은 수단을 다하여 잠식해 오던 그 소굴(巢窟) 홍콩(香港)과 미국의 동양 경략기지 마닐라도 이미 우리 황군의 손에 들어오고 싱가포르(星港)도 머지 않아 우리 황군의 군문(軍門) 앞에 그 악성의 자태를 나타낼 것입니다.

태평양 가운데다가 전력을 다하여 갖은 군비를 다해놓고 우리나라를 위협하던 미국도 개전한지 몇 시간이 못 되어 태평양함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전멸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승리에 흥분하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이 물론 장기전이 될 것은 각오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십년 혹은 이십년이라도 싸워나가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나라에 바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부자유한 것이라도 참아나가서 이 전쟁의 최후의 승리를 완전히 얻기까지 싸워나가는 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반도 1천 2백만 부인들은 우리가정도 역시 전장이고 가족이 모두 전사라는 자각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통하여 전쟁을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실천 노력하여야겠습니다. 허례를 폐지하고 의식주를 될 수 있는 대로 간이화(簡易化)하도록 하며 절대로 흰옷을 폐지하고 색옷을 입고 절약 저축하여야겠습니다.

나라에 바치는 세금 같은 것은 지체 말고 바치게 할 것이며 또한 집안에서 고용인을 두고 지내는 가정에서는 이제부터 될 수 있는대로 자기 자신이 손수 가정일을 하도록 하여 고용인의 노동력을 군수품 공장 같은 데 제공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데까지 장청소년(壯靑少年)을 지원병이나 군수품공장으로 보내시고

104) 임숙재(任淑宰)의 창씨명.

그들의 노동력을 우리 부인의 힘으로 보충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조상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이번 태평양전이라는 큰 사업은 우리의 손으로 완성시키어 우리의 자손에게 천년의 평화와 행복을 전해주는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출전 : 豊川淑宰, 「必勝態勢下の半島國民에게 - 萬代の遺産을남기자, 『半島の光』(鮮文版) 第51號  
1942년 2월, 10쪽〉

## 18. 장덕수(張德秀)

### 1) 적성(敵性)국가의 정체

1.

‘지나사변’<sup>105)</sup>은 완전히 낚막고 동아천지에 공영권을 확실히 세우는 것은 제국이 중외에 선포한 회천(回天)의 대업입니다. 이 대업을 방해하는 나라가 즉, 적성국가인데 이러한 적성국가는 말할 것도 없이 이른바 ABCD의 국가군(群)입니다. 아미리카(亞米利加), 영국, 지나, 난인(蘭印)입니다. 그중에서도 지도적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 강국은 영미의 두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야말로 대일포위진의 본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란서도 일찍이 영미를 추종하는 나라로서 제국의 진로를 방해하는 적성국가이었지만 한번 독일의 철퇴를 마친 이후로는 칠령팔락(七零八落)하여 아무런 힘이 없고 더욱이 황군이 불인(佛印)에 진주한 이후에는 화순협조(和順協調)에 유공불급(惟恐不及)이외다. 독일과 이태리는 제국의 맹방이요 소련은 동아 정국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제국과의 중립조약을 근본국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아즉도 공산주의에 입국(立國)하고 있고 대독(對獨)결전에 있어서 영미의 후원을 절대조건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그러고 그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지나의 공산당이 의연히 항일전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어딤까지든지 제국의 우호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미상불(未嘗不) 장래에 경계를 요하는 바이지만 여하튼 현하 실정에 있어서는 제국과의 중립조약을 부동의 국책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때에 제국의 동아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적대성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현실에 적대성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는 영미의 두 나라뿐입니다. ABCD진영의 그 외의 국가들과 또 장래 미국을 추종하리라고 볼 수 있는 남미의 제 소국가와 같은 것은 그야말로 개수일촉(凱袖一觸), 죽히 꽤론할 것도 못되는 것입니다.

2.

그러면 일본의 적성국가로서의 영미의 정체는 어떠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미는 모다

---

105) 중일전쟁.

세계최대의 부를 자랑하는 부국이외다. 세계최대의 해군을 자랑하는 강국이외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 부강의 실상여부를 논의코자 하지 않습니다. 원래 영미가 제국의 적성국가가 되는 것은 그들이 부강한 까닭이 아니라, 그 부강을 의지하여 동아의 신질서, 나아가서는 세계의 신질서건설을 방해하는 구세력이 있는 때문이니 나는 차라리 영미문명의 근본이데올로기를 검토하여 그 정체를 이 방면으로부터 폭로하고자 합니다.

### 3.

첫째, 영미는 예수교 국(國)이라고 칭하고 있지만은 예수교 국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의 강권국가입니다. 예수의 사랑우에 나라를 세우고 그 도의에 의하여 행동을 규정하는 예수교 국이 아니라 한갓 세욕(世欲)에 의하여 강력 우에선 권력국가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어서 예증을 들 것까지도 없지만은 영미에 가서 친히 문견한 일단을 드리 여러분께 참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교 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에 원래 노예와 같은 비인도적 문제가 존재할 리가 없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흑인노예의 문제로서 4년 동안이나 비풍참우(悲風慘雨)의 남북전쟁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아니 흑인의 학대문제는 오늘날에도 오히려 해결되지 못한 사회문제의 중대한 일부면입니다.

일례를 들면 하로는 뉴-욕의 종로라고 할만한 '부로오드·웨이'의 한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섯습니다. 음식의 주문을 마치고 안졌노라니까 한 40~50되어 보이는 점잔은 흑인 한 사람이 드리워서 역시 점심을 사먹으라는지 손에 드렸든 '가방'을 옆에 놓고 식탁을 의지하여 안겼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식당주인이 그 사람에게 가서 무어라고 몇 마디를 속살거린즉 그 흑인은 얼굴에 분기를 띄고 자리를 차고 나아갑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 주인을 불러 사유를 무른즉 그 대답이 우리 집에서는 흑인에게 음식을 팔지 않습니다 합니다. 웨, 흑인의 돈에는 '늑'이 쓸었느냐 한즉 흑인에게 음식을 팔면 백인 손님들이 오지를 안는다고요. 다음으로 내가 친히 당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읍니다.

오레곤 대학에 있을 때에 그 동리 어떠한 이발소에 이발을 하라 갔읍니다. 그런즉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동양사람의 머리는 깎지 안는다고. 웨 동양사람의 머리털은 쇠사실인 줄 아느냐 한즉 하여튼 동양사람의 머리는 안 깎는다는데 무슨 잔소리냐 해서 할 수 없이 대학 안으로 도라와서 이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색의 구별도 없고 성의 구별도 없다는데 예수교 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에는 이와 같이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합니다.

영국은 어떠합니까. 천하의 신사국으로 자임하는 영국은 아편과 같은 비인도적 상품을 팔 리가 없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아편을 팔기 위하여 한 100년 전에 지나와 아편전쟁을 한 것은 여러분의 기억에도 새로울 줄 압니다.

나는 그보다도 더 한층 참혹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읍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시대라면 영국역사에는 꽃으로 치는 시대입니다. 드렉과 같은 명장(名將)도 그때에

낮고 셰스피어와 같은 시성(詩聖)도 그때에 낮습니다. 이러한 이를테면 명군성조(名君聖朝) 때에 한 칙령이 나렸읍니다. 그것은 영국사람에게 노예를 무역하는 특권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 문구의 대의는 이러합니다. “영국사람은 누구나 총과 칼을 들고 아프리카(亞弗利加)의 촌락을 습격하여 붓잡히는 흑인은 남녀노유를 물론하고 모다 노예로 팔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도적질을 공연하게 국법으로서 영국사람의 특권으로 허락한 것입니다. 이 소위 특권에 의지하여 조직된 원정대의 첫 배 이름이 무엇이나 하면 예수 Jesus라는 배였읍니다. 오늘날 영국의 유명한 항구의 하나인 ‘리바-푸울’과 같은 항구는 이러한 노예의 무역으로써 살진 항구입니다.

영미의 역사를 훑어보면 그 부강의 배후에는 이러한 노예의 억울한 눈물과 분한 피가 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도의의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수)

#### 4.

둘째, 영미는 자유주의·개인주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도적질을 공연히 허락하는 전통을 가진 나라가 참으로 개인의 존엄을 늦기는 개인주의를 세울 수가 있으며 인격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를 엿볼 수가 있습니까. 대개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고는 도덕의 터를 닦을 수가 없고 도덕의 터가 문어진 곳에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의 집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영미의 개인주의는 결국 이기주의이요 자유주의는 방자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리(天理)가 끈어진 곳에 사욕만이 춤을 추는 것이 영미의 개인주의이요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토대 위에 과학으로 싸아 노은 것이 곧 이른바 산업주의입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선 영미사회에서는 그럼으로 노동자는 일개 사람이라기 보다도 몬져 생산의 수단이요 자본가는 일개 국민이라기 보다도 몬져 자본가입니다. 이와 같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교환가치의 관계에 서서 이익을 다투는 것이 영미의 사회조직입니다. 거기에는 이해도 없고 동정도 없고 다만 이해교계(利害狡計)가 있을 뿐입니다.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을 것 뿐입니다. 약육강식하는 동물사회에 무슨 자유주의·개인주의가 있을 리가 있습니다. (박수)

나는 영국의 과거 산업사를 읽고 그 소위 산업주의의 문명이 핵심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통절히 늦기 었읍니다.

#### 5.

이와 같이 자국 내에 공리주의의 문명당초(堂礎)를 가진 영미가 밖으로 도덕의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인자의 덕을 싸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사실이 증명입니다. 동아의 열(列)민족은 그 착하(擻下)에 피가 마르고 그 포학하에 뼈가 굵었읍니다. 인도는 어떠한가. ‘말레이’는 어떠한가. 난인과 지나는 어떠한가. 여러분,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황도 일본제국의 적성국가인 영미의 정체는 이에 있습니다. (박수)

〈출전 : 張德秀, 「敵性國家의 正體」, 『三千里』 第14卷 1號, 1942년 1월, 24~27쪽〉

## 19. 조기홍(趙圻烘)

### 1) 조선의 옷에 대하여

조기홍 진명여고보 강사

늘 조선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를 비판하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착용하고 있는 습관상 그 불편이나 불만도 예리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실질적으로 이를 입었을 때 우리는 경제적 혹은 위생적으로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옷(和服)을 착용했을 때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몸이 가벼움을 느낀다. 옷감에 있어서는 염색이나 천을 짠 방식 등이 그다지 정교하거나 복잡하지 않고, 또 자본도 크게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

위생적인 면에서는 부인복으로서도 학생복으로서도 개량된 형태에 따라 달리 압박을 줄 만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 가장 우리에게 문제와 고민거리는 제작하는 데 있어서 형태나 색조에 그다지 머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는 단계가 되어 양복처럼 궁리나 연구도 없이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장점일지 단점일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옷의 숫자를 원하는 일반 여성들의 공통성을 다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점이다. 따라서 장롱 속에는 착용하지 않는 옷의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부인들은 언제나 재봉에 여념이 없고 또 세탁이나 수선 횟수를 많이 갖는 것은 조선부인을 사회에서 의복 재봉 시간으로 매장하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부인들의 심적 개량과 근본적 지질 개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남자 옷에 관해서는 흰색과 옷감을 개량하면 다른 점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신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타성에 젖을 우려가 많고, 심신을 짊어주는 점이 없다는 데서 비활동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미에 관한 문제이다. 속이 비치는 여름옷의 매력은 새삼 말할 것도 없고, 예부터 부인복의 긴 스커트의 자연스러운 주름(gather)의 동적 매력은 또 각별한 맛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의는 미의 표준이 매우 딱딱한 선에 의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딱딱한 선의 표시는 딱딱한 나뭇 고정되어 있어서 미의 발전성이 없다. 따라서 양복처럼 복식 여하에 따라 그 얼굴 형태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하나같이 고정된 형체미는 미의 미래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좀 더 내부 깊숙이 파고든 상세한 비평은 한둘이 아니지만, 지면 관계상 대강의 아웃라인만 제시하기로 한다.

〈출전 : 趙圻烘 「朝鮮の婦人服について—各方面の人士に訊く : 朝鮮服について」, 『緣旗』第2卷 9號, 1937년 9월, 18쪽〉



## 2) 생활개선에 대하여

부인문제연구회원 조기홍

생활개선 문제는 10여 년간 많은 사람들이 떠든 문제였고, 또 누구나 바라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결과도 없이, 또 이렇다 할 방법이나 정책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풍선을 쫓는 아이들 처럼 여기저기서 요란하게 논의만 하다가 사라졌는데, 비상시국에 직면하면서 그 필요성을 통감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강연회나 좌담회 등 다양한 회합을 통해 새롭게 자극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렇다 할 구체적 실행은 하나도 볼 수 없다. 먼저 어떤 목표를 향해 실행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조선부인문제연구회에서 의식주를 기준으로 의례와 기타 등등을 포함해서 조선 전체에 호소하는 것은 겨우 작년이다. 우리 '반도인(半島人)'<sup>106)</sup> 가정생활은 개선해야 할 수많은 조건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할지 망설여지는 난제이다. 그중에서 가장 실행하기 쉽고 설비나 일절 비용이 들지 않는 가정의 식사 시간을 함께 하고 공동식탁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연하러 돌아다니던 중 어느 지방의 한 부인이 "우리 집에서는 여기서 거론한 문제 중에서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실로 낡은 가정생활의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지와 완고함에서 생기는 사회성의 결여를 말해주는 하나의 사실이다. 지금은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하는 것보다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아아,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더욱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곧장 개선방법으로 직진해야 한다. 그러나 실행이야말로 강건한 의지와 가족의 일치협력이 가장 필요한 조건이다. 또 가족의 협력만으로는 안 된다. 관민이 함께 일치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이를 위한 실행회는 부인들을 동원하여 출발해야 한다.

여기에 어느 마을의 한 예를 들도록 하자. 시즈오카현(靜岡縣) 아라이초(新居町)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가구 수는 1,763가구가 있는 생활개선에 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 마을의 역전 광장에는 "옥의 금연 아라이 경찰서·아라이 소방조"라고 적힌 큰 간판이 서 있고 마을 주민들 중에서 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또 이곳은 마을 주민이 일치단결해서 생활개선의 실행을 기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이다. 그리고 개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조건이 아니라 지방의 실정을 고려한 자신들의 개선이라는 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라이초에서의 결혼 개선의 일례를 보자. 먼저 마을의 유력자, 단장·회장 등이 수차례 만나 그 결과 하나의 안을 짜고 그 뒤 극장에서 주민대회를 열어 개선사항을 가결 확정하고 나아가 그 대회 석상에서 모의 결혼식을 공개해 모범을 보였다고 한다. 이 모의 결혼식이 개선사항의 큰 도화선이 되어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마을에서 혼례식이 있을 때마다 마을회장과 조역이 직접 나서서 개선 지도에 임하고, 오늘날에는 그 취지가 철저하게 스며들어 지도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 부업 개선에서도 마을회장이 직접 선두에 서서 주부회의 간부·기술자 등과 함께 선진지역 시찰을 하고 이를 참고로 개선 계획을 세워 먼저 부업 개선강(講)을 열어 시작한 것이 시초이고, 매월 50전의

106) 조선인.

출비로 3개년 계획으로 부엌 개선에 노력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사용하기 편리한 밝은 개수대 옆에 반드시 펌프나 물독이 있고, 개수대 한쪽에 창문에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다고 하고, 기타 다양한 양식이 개선되었다. 게다가 개선한 집에는 반드시 관공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관공서에서는 일정한 부엌 개선 심사 표준에 비추어 심사한 뒤 합격자에게는 5엔 이내의 장려금을 교부하는 동시에 '부엌 개선 완료'라는 표찰을 문에 걸어두도록 한다고 한다. 지금은 거리를 걸어가면 여기저기 표찰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부럽기 짝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남자도 여자도 모두 마음에 새겨야 할 성실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

나는 창신정(昌新町)에 집을 세운 지 8년이 되는데 건물을 세운 당초에는 술집이 두 곳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집 앞에 나란히 세 곳, 조금 떨어진 곳에 네 곳이 나란히 들어선 모습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게다가 요즘에는 새벽 3~4시에도 시끄러워 한 잠도 잘 수 없는 상태인데, 바로 옆집에서는 거의 매일 밤잠을 잘 수 없다며 불평을 하고 있다. 아라이초의 옥외 금연 실시 상황에 비해 참으로 하늘과 땅 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창신정은 술집으로 평판이 나 있는 모양인데, 아마 20곳은 넘어도 그 이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창신소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을 위해 또 동네 아이들을 위해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

요컨대 반도 가정 생활개선 문제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에 들어가기에는 때늦은 감이 든다. 개선해야 할 문제는 너무나 많다.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냐가 초미의 문제이다.

〈출전 : 趙圻烘 「生活改善について : 非常時國民生活改善問題特輯」, 『總動員』 第1卷 3號  
1939년 8월, 24~25쪽〉

## 20. 최남선(崔南善)

### 1) 특공대의 정신으로 성은에 보답합시다

만주국건국대학(滿洲國建國大學) 명예교수 최남선

선전(宣戰)의 대조(大詔)를 받자온 지 어느덧 3주년에 하늘같은 기록하신 마음을 어느 날 감격하지 아니 하였으리까 마는 싸움판국이 더욱 긴박하게 옮겨가 결승의 마지막 계단에 올라간 오늘 이제를 당하여는 감분격양(感奮激昂)의 정이 새로이 북받쳐오름을 누가 억제한다고 하겠습니까. 대동아의 전쟁은 하늘을 대신하여 불의를 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류세계의 대부분을 압제와 고통의 형틀로부터 시원히 풀어놓으려 하는 도의(道義)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대동아의 십억 대중이 제각기 저의 생명의 권위를 회복하고 행복의 광명을 붙잡는 저마다의 일대사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천지의 정의를 어떻게 하며 작게는 국민으로의 의무와 크게는 인류로의 논리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떠한 길을